

■ 3월 21일 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1. 공동기자회견

- 3.21 저녁 민주노총 파견단과 간담회 갖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함. 3월 22일 오전 10시(요르단시각) 민주노총 노동자 파견단과 함께 발표하는 공동성명서임.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 노무현정부의 한국군파병에 항의하고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임.
- 한국에서 같은날 오후 4시 예정되어 있는 반전집회에, 민주노총에서 이 공동성명서의 낭독에 대해 제안하여 가능하다면 현지통화연결하거나 대신 낭독(지원연대나 해경/은국 중 한명, 민주노총 한명이 공동으로)하는 방안을 알아보기로 함.
- 국내 언론에 보도자료 발송해주시기 바람. 민주노총에도 요청할 거라고 함.

2. 언론 대응 관련

- 현재는 임영신, 오김숙이가 맡고 있음. 인터뷰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밤에는 한사람씩 당번을 맡아 전화 대기함.
- 팀원들이 개진 당일 빗발치는 전화로 너무 피곤해진다. 언론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의도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부분은 있음. 아직 대응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나 대체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가 중요함을 알고 있음

■ 3월 22일 한국정부 파병결정 규탄 민주노총 대표단과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 성명서

제2의 베트남이 될 이라크를 향한 미국의 침략  
한국 정부는 군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아침 9시, 파병된 미군을 위해 2분간의 묵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미국의 뉴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금 자국의 군인이 아니라 죽어갈 이라크 사람들과 무고한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빌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군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힘을 모두 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 거센 반전의 열기속에서 베트남전을 감행했던 미국과 그 더러운 전쟁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었던 박정희 독재정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국민을 속이며 그 더러운 전쟁에 참여했던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국민의 개혁열망을 대변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석유를 위해 이라크 민중의 피를 대가로 서슴없이 전쟁을 자행하는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서, 이라크의 현재는 언제든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한국정부가 파병하는 바로 그 땅에는 세계 평화를 열망하며 이라크전쟁을 반대해온 우리들이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 총이 겨누는 곳에, 그 미사일의 목표점에 이라크 민중과 함께 있다. 지금 바그다드에, 48시간의 공습 속에는 한국 이라크 평화팀 3명이 이라크 민중과 함께 있다. 방독면 하나 없이 이 전쟁을 맞이해야 하는 이라크 사람들과 전쟁을 겪어내기 위해 우리는 바그다드와 암만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이 더러운 침략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한 미군의 범죄와 더불어 그들과 공범이 될 한국군의 부도덕한 참전을 함께 증언할 것이다. 우리는 승자의 기록으로 진실의 기억을 말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온 존재로 이 전쟁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눈으로, 남성의 눈이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눈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의 눈으로, 구호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생을 침탈당하는 자의 눈으로 이 전쟁의 시작과 과정,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라크는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기록할 이 전쟁의 진실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고 만난 이라크의 평화를, 그들이 죽인 무고한 사람들을, 피와 함께 빼앗은 석유를, 수많은 평화운동가들을 죽이며 얻은 승리의 더러운 얼굴을 드러낼 우리의 증언과 진실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그 슬한 이라크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닌 생명의 힘으로 기록할 것이다. 미국과 전쟁을 지원한 침략자들은 이 전쟁을 이길지라도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진실의 담지자로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

■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노무현 정부는 제 2의 베트남전이 될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지지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3월 22일 암만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민주노총 전쟁반대 대표단



■ 3월 22일 보고서 (오김숙이)

1. 귀국 일정

- 최병수, 이해중

22일 요르단에서 20:25(MS항공) 출발, 카이로에 21:55 도착

23일 카이로에서 03:55(KL항공) 출발, 암스텔담 07:55 도착

23일 암스텔담에서 17:00(KL항공) 출발, 한국에 24일 11:20 도착

- 오김숙이, 전승로

23일 요르단에서 09:35(RJ항공) 출발, 프랑크푸르트 15:15 도착

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7:55(LH항공) 출발, 한국에 24일 12:15 도착

- 루프트한자의 경우 수월하게 다른 항공으로 전환해준 반면에, KLM은 한참을 싸워야했음에도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음

(처음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헛걸음을 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2. 귀국과 관련하여

- 일단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길. 만약 기자회견을 한다면, 오늘 밤 안으로 기자회견문 작성해서 보내야 하고, 두팀이 어차피 한시간 간격으로 한국에 도착하므로 함께 하는 방안으로 가야 함.

■ 3월 23일 한국 외교부 규탄 성명서

전장 속에 남아있는 자국민의 대사관 출입을 저지하는  
한국 외교부의 무책임한 자국민 보호를 규탄한다.

한국반전평화 지원팀 및 한국 평화팀과 함께 하고 있는 경남평화연대에 따르면 바로 한 시간전 바그다드 한상진 씨와의 통화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얼마나 자국민의 안전을 방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직면할 수 있었다. 모든 전화와 인터넷 통신망이 차단 된 미국의 집중 공습 속에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원 3명의 안위를 전달하기 위해 한상진 씨는 어제 오후 한국 대사관의 위성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이라크 한국 대사관을 그 폭격을 뚫고 찾아갔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은 반전평화팀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커녕 자국민의 권리인 대사관 집입마저 차단했다. 그들은 한상진 팀장에게 요르단 대사관 측의 연락이 있어야 대사관 진입 및 위성전화 사용이 허가된다고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한국 외교부의 실책이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틀전 러시아로 출국한 정재원씨(33)의 경우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다. 7일, 10일, 17일 전쟁 압박설이 계속되던 이라크 내에서 한국 대사관의 협조와 한국으로의 연락을 위해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지원은커녕 한상진씨와 동일한 출입거부를 당한 것이다. 한국 이라크 대사관 및 요르단 대사관 측은 분명 이라크 내에 남아있는 현지의 평화 활동가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그들은 전화를 통해 이미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게 위급한 경우 대사관의 위성전화를 쓸 수 있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한국 평화활동가들은 위험속에 방치해 두고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대사관 출입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 외교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3월 23일  
암만에서  
한국이라크 반전 평화팀



■ 3월 24일 2차 귀국 기자회견문

# 전 세계 양심들의 직접행동만이 미국의 대량학살을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요르단에 입국,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세계에서 모여든 평화활동가들과 미국의 침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에서 한국 아이들과 시민들이 소망스럽게 보내준 반전의 메시지를 현수막, 퍼포먼스, 사진전시 등으로 세계에 전하였다. 부시의 최후통첩이 있던 3월 17일 우리는 요르단으로 철수하였으며, 비폭력 직접행동 등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처음부터 전쟁을 이라크 사람들과 함께 겪어낼 것을 결심한 세 명의 팀원은 이라크 바그다드에 남아 있다. 우리는 침탈당하는 자의 눈을 지녔기에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저지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한 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 의지로 모여, 비폭력 직접행동의 신념으로 요르단과 이라크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우리는 팀원 전체의 안전을 중요시하면서도 팀원 각자의 의견과 선택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활동해 왔다.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된 동안에도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요르단캠프는 이라크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라크에 있는 세 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지원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국내와 연계하며 난민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4일 낮 12시경 최병수, 이해중, 전승로, 오김숙이 등 네 명의 팀원이 한국에 도착한다. 귀국하는 네 명의 팀원은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와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하루빨리 중단시키고 노무현정부의 침략전쟁 지원을 막기 위한 국내 반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막을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우리는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한 더 넓은 반전평화운동의 물결과 만나고 있다. 전 세계 평화를 갈구하는 양심들의 직접행동만이 인류의 미래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우리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이라크와 요르단, 국내로 이어지는 반전평화활동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고 우리들의 소중한 꿈들을 지켜가기 위해 전 세계 양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3년 3월 23일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일동

■ 3월 25일 보고서 (임영신)

## 1. 팀의 체제 개편

임시적인 체제로 자의에 의해 팀장역할을 수행했던 이팀장님이 어제 사임의사를 밝히시고 팀의 논의와 최혁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신임팀장을 선출했습니다. 가장 큰 논점은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이 현지에 남은 6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팀을 일컫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또 가장 오래까지 이곳에 남아 난민 사업까지 진행해야 할 사람이 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

최혁 팀장님은 어제 최종적으로 적어도 5월초까지 팀장으로서 평화의 증언과 난민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의지를 표명했고 팀의 결의로 새로운 팀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여전히 언론으로부터의 인터뷰요청이 많아 제가 언론업무와 난민 관련업무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2. 난민구조관련 업무진행 사항

오늘 유엔기구들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해 현재까지의 난민상황 앞으로의 난민계획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논쟁의 지점은 어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22명을 요르단 정부가 거절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 그리고 언제 이라크로 들어가 전격적인 난민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첫 번째 질문은 요르단 정부에게 두번째 질문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레스 카드를 세 사람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유엔 및 요르단 정부관련 기자회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내일 국경지역 난민 캠프를 답사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주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mbc기자들, 그리고 저희팀에서는 임영신, 최혁, 주재일, 성해란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적신월사에 발원터에 신청을 해 단기적인 난민캠프 경험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선교사들이 만든 난민 관련 ngo 사랑의 오아시스와의 미팅을 통해 현재 난민발생 예측수요, 지원이 필요한 규모, 우리가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창고, 물류수단 등), 이후 이라크 내 난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획득 요건, 가장 절실한 지원의 품목들 등 초기 리서치 수준의 팩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들을 먼저 분석한 후 이주 내에 저희들의 난민 사업 초안, 국내 난민캠페인 파년 기회초안 들을 짜 볼 예정입니다. 난민관련 현지 디렉터는 최혁팀장님이 국내에서의 난민관련 모금 캠페인 진행은 제가 함께 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민단체, 재단, 방송사, 신문사와 더불어 난민 캠페인 컨소시엄을 꾸리는 것을 다음 주 초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3. 언론관련 진행사항

- 하루 평균 10-20통의 전화인터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의 경우 이틀전 저희들의 파병성명서 발표, 오늘 최혁팀장 인터뷰, 시위사진 등을 통해 암만 팀의 활동을 저녁 9시 뉴스에 보도한다고 합니다. 모니터 부탁드립니다. 그외 몇가지 신문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은 한국에서 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이후 자료집 제작 등과 관련된 선행작업이 되겠지요.



언론에 관한 우리의 원칙

- 언론인은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되 동행취재는 가능하다.
- 그러나 취재 일정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 없는 행사나 그림을 언론을 위해 만들지 않는다.
- 우리의 보도지침을 언론사에 분명하게 전달한다.
- 바그다드의 소식, 암만에서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4. 22일-23일의 활동

22일 금요일 :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 팔레스타인 집성촌 대규모 가두 시위 참여  
알자리아 방송 등 몇몇 외신 취재

23일 토요일 : 아침 9시 한국 대사관앞 파병반대 시위 / 한국 시위현장과 생중계  
뉴스엔조이를 통해 요르단 정부에 3인의 프레스 카드 신청

24일 일요일 : 요르단 대학 집회 참여 / 오후 5시 팔레스타인 집회 참여  
6시 30분 요르단 국무총리의 정부 난민 정책 및 반전 기자회견 참여  
박노해 선생 및 일부 언론인과의 저녁식사 및 간담

25일 월요일 : 최혁팀장 프레스 카드 신청 및 4인 국경방문 허가증 발급  
10시 일일 일정 회의 및 목념 /mbc 인터뷰 방문  
1시 요르단 대학 집회 참여했으나 캔슬 / 미주 한국일보 기자 방문  
4시 인터컨티넨탈 호텔 유엔 난민 구호 활동관련 기자회견 참여  
5시 30분 마리와 나자렛 성당 반전 예배 참여

5. 활동계획

- 원칙

매일 아침 9시 이라크 민중을 위한 2분간의 묵도와 하루 일정공유로 시작한다.  
매일 저녁 9시 하루의 일정을 공유한 후 마친다.  
현지에서의 집회가 있다면 반전평화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대한 참여한다.

24일 화요일 : 요르단 국경 난민 캠프 답사

25일 수요일 : 현지 국제 평화팀과의 간담회 및 현지에서의 촛불집회 기획

26일 목요일 : 적신월사 발런티어 신청 / 난민 구호사업 관련 기획회의

27일 금요일 : 저녁 로마 신전터에서 국제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

28일 토요일 : 난민 활동계획안 완성

6. 지금부터는 언론인터뷰 시 한국 평화 활동팀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금, 이후 난민 사업을 위한 모금이 동시에 이어져야 겠습니다. 사진은 주재일 기자가 정리 중이니 저녁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인터넷 기사 게재현황

- 오마이 뉴스 : 임영신
- 참여연대 : 반전평화 사이트
- 녹색연합
- 녹색대학 : 별도페이지 구성
- 뉴스엔조이 : 주재일 & 임영신
- 진보넷 : 박기범

인터넷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3월 30일 배상현 팀원의 현지 증언 및 이라크반전평화팀 재입국 추진 선언 기자회견문

한국정부와 국회여, 파병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몸으로 세울 평화의 벽을 넘어서라

평화의 증언을 위해 국경을 넘은 배상현 팀원의 현지 증언/  
한국군 파병반대를 위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의 이라크 재입국 추진 선언

한국정부가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군대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저주스러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라크의 무고한 죽음 앞에 우리의 사죄를 바치기 위해 이라크를 향한 재입국을 추진할 것이다

별첨자료 :

열흘간의 증언 - 폭격 속에서 본 피의 바그다드  
바그다드 현지, 배상현씨, 바그다드의 피해현장 사진

1. 통신이 두절된 바그다드, 증언을 위해 사선을 넘은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배상현 팀원

3월 30일 새벽 2시 15분, 폭격 속의 바그다드에서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조사하던 한국 반전평화팀원 배상현씨가 국경을 넘어 암만에 도착했다. 전화국의 폭격으로 모든 통신이 두절된 바그다드의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바그다드 현지에 남아있던 한국반전평화팀 세 사람의 기록과 증언을 들고 사선을 넘어 암만에 다다른 것이다. 도착한 그의 등에는 선연한 핏자국이, 그의 얼굴과 손에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국경을 넘는 길 폭파된 도로의 함몰지점에 차가 전복되면서 2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함께 차를 타고 있던 4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부상자는 국경근처 UNHCR 난민캠프의 의료팀으로 후송되고 배상현씨는 다른 차편으로 새벽녘 암만캠프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반전평화팀 캠프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팀원들과 현지 사정, 국경을 넘어선 목적, 이후의 활동계획들을 나눈 후 안정을 취했다.

2. 배상현팀원의 증언을 통해 듣는 바그다드 현지의 상황

바그다드 현지는 집중폭격이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전시체제로 들어갔다.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닌 모든 땅에는 참호가 만들어졌고, 거리에는 탱크와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는 정부로부터 전투와 자기 방어를 위한 총이 한 자루씩 지급되었다. 이라크의 시민들은 이 폭격 속에서도 피난이 아니라 이 전쟁을 끝까지 맞서 싸우기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3. 바그다드 현지에 남아있는 평화 활동가들의 상황과 활동

저녁 6시 이전까지는 병원방문, 폭격지점에 대한 방문과 조사 등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던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이들 전부터 하루 한시간으로 외출 시간이 제한되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활동가들은 개별적인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라크 비밀경찰의 감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사진 촬영이나 외부로의 메일 송신 등의 통신활동의 경우 스파이 행위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추방 혹은 행위에 대한 통제가 시작된다.

그러나 폭격지점에 관한 조사와 증언 작업은 이라크 정부의 안내 속에 폭격당일이 아닌 하루 후에 현지 방문과 폭격피해자들과의 인터뷰 등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이라크 평화팀의 세 사람은 현지에 남아있는 국제 이라크 평화팀 활동가들과 함께 폭격지역을 조사하고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왔다. 한국팀의 배상현씨 경우도 현지에서 카메라로 폭격지역을 촬영하다가 이라크 경찰당국에 발각이 되어 머물던 호텔에서 쫓겨나 정수시설에 머물다가 통신의 두절을 뚫고 이제까지 기록한 평화의 증언을 전하기 위해 사선을 넘은 것이다. 국제이라크 평화팀(IPT)의 메일 송신 담당자는 하루 하루의 증언과 기록들을 외신기자들의 위성을 통해 수신하다가 정부 당국에 발각이 되어 이들 내에 출국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가 아니라도 이라크는 전화국의 폭격으로 이미 건물 내 내선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이 두절이 된 상태이며,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국의 의지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이라크를 나올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는 평화운동가들의 퇴로를 열어둔 상태이다. 이곳 암만 현지에도 이삼일 동안 십 여명의 국제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로부터 출국해 도착한 상황이며 그들을 통해 바그다드 현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출국행렬의 반면, 이들 전 국제 CPT멤버 9명이 이라크로 입국을 하는 등 폭격중인 바그다드를 향해 밀입국이라도 감행하려는 국제활동가들 수십명이 이곳 암만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자국민의 보호는커녕 출입마저 거절한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의 기본권 침해

바그다드 현지에서 한상진, 유은하, 배상현씨 등은 도움을 얻기 위해 두 차례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첫 번째 방문시 그들은 출입조차 거절했다. 이에 대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의 공식적인 항의와 성명발표 후 외무부의 조치로 두 번째 방문시 입장은 허가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한 사람씩 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정문을 제외한 모든 문들이 닫혀있어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커다란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신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한국 대사관의 행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사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지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지속적인 항의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군의 파병결정을 앞둔 한국정부를 향한 우리의 요구와 결의

## 우리는 한국군의 파병을 온 몸으로 막기 위해 이라크 재 입국을 추진할 것이다.

배상현 팀원이 국경을 넘은 이유는 폭격과 위협을 피한 탈출이 아니라 현지의 사정을 증언하고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평화의 걸음이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 또한 평화의 증언, 전쟁의 종단을 하기 위한 반전평화의 활동을 위해서였다. 때문에 우리는 한국정부가 온 국민들의 반대와 세계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침략전쟁에 참여하려는 파병 동의안을 밀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온 몸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음을,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니라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중 재입국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원들은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이 거의 중단된 이라크 대사관을 찾아 한국군의 파병 시도에 대한 사회적 파병반대를 위한 입국비자 신청을 계속해 갈 것이다.

1. 한국정부는 미국, 영국정부의 부당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국회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평화 염원을 존중하여 한국군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온 몸으로 반대하며 2003년 3월 30일 압만시간 12시, 바그다드 시간 11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한국과 압만, 바그다드에서 동시에 이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이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어제 출국한 배상현씨의 경우 출국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분간 절대안정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 어떤 개인적 인터뷰도 거절합니다. 취재가 필요한 언론의 경우 이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시고,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한국반전평화팀의 최희 팀장, 대변인 임영신, 한국이라크반전평화 지원연대의 오김숙이, 염창근씨와 인터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현씨의 건강상태가 이상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오늘 이후 일체의 외부연결은 불가능합니다.

## ■ 3월 30일 전쟁범죄 관련 IPT 보고서

### 2003년 미국의 바그다드 공격에 관한 전쟁범죄 및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라크 평화팀(IPT)의 보고서

(참고: 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병력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물들의 파괴에 관한 현재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사진 순으로 구성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는 서두의 "최근보고"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사진이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였다.)

참고 : 사진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홈페이지 참조(iraqpeace.ngotimes.net)

### 최근 보고

#### 알 아목 종합병원 - 3월 26일

3월 26일에 캐시 브린(Cathy Breen)과 일행들이 알 아목 종합병원의 다음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7살 소년인 아마르(Amar)\* 는 여러개의 폭발물 파편들을 맞고 출혈과다로 가슴에 응급 튜브를 꽂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인 한나(Hannah)는 이날 아침 그 집에 미사일이 떨어져 죽었다. 그는 바그다드의 농촌에서 왔다. 농부의 아들인 8살 소년 무엔(Mueen)\*은 복부 부상으로 인해 배액관을 꽂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로 꺼낸 모든 작은 파편조각들을 일행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폭발로 인해 죽었다. 그의 6살난 동생 알리(Albi)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10살 소년 루셀(Rusel)\*은 그녀의 방문 밖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부상당했다. 일행은 X 레이를 통해서 그녀의 가슴에 박혀있는 파편을 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가슴에 튜브를 꽂고 있었다.

#### 알 아목 종합병원 - 3월 24일

3월 24일 캐시 브린과 일행이 알 아목 종합병원의 다음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14살 중학생인 나다 아드난(Nada Adnan)\*은 앞머리 부분에 깊은 상처와 골절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녀의 허벅지 부위에도 커다란 파편이 박혀있었다. 우리 일행 중 일부는 그녀와 그 가족들이 병원으로 올 때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다. 미사일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녀의 아저씨 집위로 떨어졌고,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다의 8살난 자매는 그때 죽었다. 초로의 여성 파티마는 폭격이 있을 때 두려워 했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 그녀는 이미 엉덩이 수술을 받은 후였다. 그녀는 발목에 깁스를 했고 무릎에도 부상을 당했었다.

#### 압둘라 하마드 하사리(Abdullah Hamad Hassarri) 가족

3월 27일, 바그다드 북쪽 주거지역인 알 투자르(Al Tujaar)에 있는 압둘라 하마드 하사리 가족의 집을 방문하였



다. 그들 집의 바로 옆에 발쿠이스(Balquis) 여중학교의 창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일행들을 보았다. 하씨리가족의 집에서 일행은 작고 균일한 입방체의 금속 조각들이 벽에 박혀서 만들어낸 수백개의 흔적들과 함께 안마당에 떨어져 있는 2층의 지붕 조각들을 우리 일행은 발견할 수 있었다. 위층에는 피에젓은 커다란 매트가 있었다. 가족들은 25살의 모니드(Moneed)와 23살난 그의 부인 사하르(Sahar) 그리고 그들의 6살난 아들 키세르 무흐웹(Quiser Muhweb)은 폭탄으로부터 금속조각들이 창문을 통해 날아올 때 그 매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 조각들은 창문 유리들을 파괴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그들 모두에게 부상을 입혔다. 많은수의 파편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벽에 흔적을 남겼지만 정원과 안마당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건물 아래층에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파편 폭탄은 집 지붕의 2~3미터 상공에서 폭발하여 문을 통해 날아들어와서 3명의 부상자를 만들어 내고 바로 옆에있는 학교의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

030326AmarAlYarmoukCB.jpg

아마르(Amar), 알 유스피아(Al Yusfia)마을에서 온 7살 소년, 3월 26일 부상당함(3월 26일)

030326MueenAlYarmoukCB.jpg

무엔(Mueen), 아도라(Adora)에서 온 8살 소년, 3월 22일 부상(3월 26일)

030324NadaAdnanAlYarmoukCB.jpg

나다 아드난(Nada Adnan), 14살 소녀, 3월 23일 부상당함(3월 24일)

030326RuselSalemAtmasAlYarmoukCB.jpg

루셀 살렘 아트나스(Rusel Salem Atmas), 로살라(Rosala)에서 온 10살 소년(3월 26일)

#####

추가 보고

알 샤압(Al Shaab) 상업지역

두개의 폭탄이 3월 26일 정오경에 무역성 쇼핑센터 세블럭 정도 뒤편에있는 바그다드의 알 샤압지역의 간선도로 주위의 상업지역의 한 복판에 떨어졌다.(세개의 폭탄이 떨어졌다고도 함) 이 두개의 폭발의 결과 깊이 1미터, 직경 1.5미터 정도의 작은 분화구가 교차로 근처의 길 양쪽에 만들어졌다. 비록 분화구는 작았지만, 폭탄은 매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도할 고안되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약 15대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대부분의 금속제품들이 뒤틀리고 불에 탔다. 일행은 파괴된 가게 앞에서 뒤틀린 금속제품들과 길을 따라서 널부러져있는 차들 그리고 두블럭에 걸친 불에 탄 집들을 보았다. 에드 키네인(Ed Kinane)은 타이어가 산산조각난 두 대의 차를 발견하였다. 가게를 따라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의 파손 정도는 안쪽으로 다양했다. 실제로 위 아래층을 막론하고 처음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한쪽 모퉁이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과 길 건너의 코너에 있는 레스토랑과 같은 일부 가게들은 난장판인채로 남겨

져 있었다.

시멘트 조각들이 식당 바다과 밖의 식사할 수 있는 지역들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시멘트 설비들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식당안쪽은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식당에서부터 약 7개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있었고, 그 마지막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무하마드(Muhammed, 36)와 아트만(Atman, 30)은 공격이 있었을 때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던 두 형제들이다.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 모두 민간인들인 9명이 그때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파편조각들로 인해 몇 개의 구멍이 뚫린 벽을 가리키면서 다른 형제인 사둔 무크신(Sadoon Mucksin, 40)이 왼쪽팔에 부상을 당했고 알 누마안(Al Numaan)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카페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5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폭발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에 사는 건축기사인 살라 미에드(Sala Myeed)는 임신한 여성인 움 주아나(Um Juana)가 그녀의 2층 아파트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말했다. 거리를 따라서 다음 블록에 살고있는 의대생인 마르완 나스웨르(Marwwan Nasweer)는 전기제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던 5살난 아이의 아버지인 아부 하싼(Abu Hassan, 45)과 마니킵 하모우드(Manikit Hamoud, 17) 그리고 살리아 노우리(Saliah Nouri, 28) 세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36살의 사리프 알바리(Sarif Albari)와 그의 11살난 아들 사페(Safe)가 자동차 수리점에서 죽었고 17살의 사파 이싼(Safa Issan) 12살인 마르완(Marwan), 그리고 운전중이던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는 모두 민간인들로 손님이거나 상인, 보행자 혹은 상가 위층에 사는 주민들 등 모두 최소한 15명이 죽었고 50명이 부상당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쿨라이브(Kulaib) 가족

3월 26일, 몇 명의 IPT 회원들이 바그다드 북쪽에서 온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알 야목(Al Yarmook)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진가인 타카시 모리주미(Takashi Morizumi)를 포함한 사진가와 비디오 기사등 국제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방문을 허용한 병원은 많은 방들이 피해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첫 번째 방에서 의사가 이야기한 한 소년에게 일행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그는 수많은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다른 침대에는 침대의 한쪽 편에 부상당한 5살 소녀 두하(Duha)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다른편은 그녀의 할머니의 침대였으며 집에질린 소녀는 어머니를 찾으려 울고 있었다. 그녀와 다른 부상자들에게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통역을 하는 의사의 이름은 자멜 알 바티(Dr. Jameel Al Bati)였다. 그녀의 아버지 수하일 쿨라이브(Suhail Kulaib)와 할머니 아브다(Abda)는 치료를 받으려갔지만, 대화를 약속했다. 딸은 거미줄 같은 부상을 입었고 왼쪽다리가 마비되어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녀의 가족들에 의하면 두하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첫날인 3월 20일 새벽 5시쯤에 부상을 당했다. 이 대가 죽은 바그다드 외곽의 시골지역에있는 그들의 작은 집에서 모두 함께 모여있었다. 처음의 폭격과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막 시작되었다. 명백하게 빛나간 폭탄이나 미사일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폭발하였다. 그들의 집 근처에서 일어난 폭발은 일곱 가족들의 살점들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28살인 두하의 어머니 함다 압달라(Hamda Abdallah)는 그 순간에 두하의 한살난 여동생 하우라 수하일(Hawra Suhail)을 돌보고 있었다.

실제로 함다는 날아드는 파편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 하우라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래서 두하의 갓난 동생 하우라는 등쪽에 약간의 상처만 입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했던것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함다는 살았지만, 하우라의 조그맣고 순결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잃었다. 함다는 그녀의 손과 팔에 파편조각들로 인한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팔과 다리에 폭탄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두하의 세살난 남동생 무스타파 수하일, 폭발로 다리에 부상을 당한 16살난 두하의 이모, 팔이 부러지고 상처를 입은 17살난 다른 이



모, 그리고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파편조각이 박힌 60살인 두하의 다른 할머니인 나드와 오가이드(Nadwa Ogaid)를 포함한 7명 중 추가로 4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알 카디시예(AI Qadisiyeh) 주거지역**

3월 26일, IPT 일행은 바그다드의 알 야목 병원 근처에있는 알 카디시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26번 거리의 602 모할라(Mohalla-지구)에 인접한 일곱채의 이층집들(#6, 8, 10/1 과 10/2)은 일요일 저녁 7쯤에 지구의 한 북편에 폭탄이 충돌하여 그 지점에 깊이 약 8미터 직경 40미터의 커다란 분화구가 만들어졌고 네 채의 집들이 평평해 졌다. 대부분의 집들은 비어있었고, 단지 두명의 사람들만이 부상을 당했다. "나는 폭탄이 떨어질 그 당시에 밖에 있었고, 이웃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위를 돌아갔고 뒤편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만을 들을 수 있었고 잠시 후 벽돌들이 날아 오고 먼지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네 차례나 일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여동생은, 이웃들이 도우러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은 악몽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약간의 부상만을 당했고 나의 여동생은 멀쩡했습니다."라고 알 야목 병원의 침대에서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 있는 28살의 아흐마드 아벨 다아옴(Ahmad Abel-Daayem)이 말했다. "내가 어머니와 동생은 보고난 다음에야 내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깊게 베었던군요."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에미(Naeemi) 가족의 집**

3월 25일, 조네드 제로부칸(Jooneed Jeeroburkhan)을 포함한 몇몇 IPT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바그다드 동부의 알 카드라(AI Khadra)지역에 있는 나에미 가족의 2층 벽돌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미국의 지속적인 폭격이 계속되던 세 번째 날인 토요일 저녁 7시 30분쯤 폭탄에 맞았다. 폭탄은 집의 왼쪽편에 맞았고, 아이들 방의 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 두 아이들은 7살과 9살난 형제이다. 그 방의 바닥은 움푹 꺼져있었다. 단지 콘크리트 속에 박혀있던 철근들 일부만이 방 아래쪽에 걸쳐져 있었다. 벽돌들과 깨진 조각들이 채소밭을 뒤덮고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두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폭발로 잘려나갔다. 집앞에 주차되어있던 빨간색 차의 바람막이 창이 산산조각나 있었다. 집 안에는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 콘크리트 계단위에 아직도 놓여있었다. 하지만 부서진 방에서 나온 책들과 장난감들은 계단 위쪽의 모퉁이에 함께 쌓여있었다. 부서진 나무 침대와 다른 가구들은 부서진 조각들 특히 흩어져있는 유리조각들을 치우기위한 목적으로 집 앞에 놓여있었다. 인접한 그의 집에 커다란 금이 가서 고통을 하고있는 사미르 마흐무드 아흐마드\*(Samir Mahmood Ahmad, 60)에 의하면 폭탄이 떨어질 때 그의 가족들과 나에미의 가족들 약 15명 모두는 다른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흐마드 부인과 나에미 부인은 자매이다. "우리 모두는 문을 통해서 뛰쳐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애들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겁을 먹습니다. 나의 처남은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친척집에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사미르는 말했다. 폭탄의 파편들은 이미 군 보안요원에 의해서 치워진 상태였다. "만약 그것들이 방사능 물질을 포함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증인들은 말했다.

**나흐라완(Hahrawaan) 농가**

3월 25일, 조네드 제로부칸을 포함한 몇 명의 IPT 회원들이 바그다드 북동지역의 디얄라(Diyala) 다리 인근 나흐

라완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였다. 농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지 5일째인 월요일 오후 4시 5분경 불시에 폭격을 당했다. 현장에서 세명이 죽었다. 그중 한명은 8살난 소녀로 이름은 파테하 가지(Fatheha Ghazzi)이고, 갓 결혼한 16살의 신부 나다 압달라(Nada Abdallah)와 집의 안주인의 동생인 20살의 여성도 있었다. 8명이 깨진 유리조각과 파편 그리고 날아든 벽돌조각들에 의해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 바그다드의 알 킨디(Al Kindi)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IPT의 에이프릴 헐레이(Dr. April Hurley)박사에 의하면, 그들은 머리와 팔, 다리, 가슴, 허리 등이 심하게 찢어져 고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한 사실들을 수집하기위해 화요일에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방문하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신랑은 그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젊은 부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헐레이 박사는 말했다. "어린 소년인 아메르(Amer)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는 완쾌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화요일 그 장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물려있었던 이웃들에 의하면 그 집은 도시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서 약간의 휴식을 위해 오는 사람들인 두 바그다드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한 농부인 아즈미 압둘라 아흐마드(Ajmi Abdullah Ahmad)의 소유라고 했다.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의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새롭게 결혼한 부부였다. 농부의 17살난 아들인 아흐마드 아즈미는 유일하게 폭발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탈출하였다. 그는 폭탄이 떨어질 때 집 주위를 높게 둘러싸고 있는 들판에서 먼지 투성이 길을 통해서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오후 4시 5분이었고, 모두가 오후 중간기도를 한 후 모두가 1층에 있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폭발음을 들었고, 돌아섰으며 폭대기 층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면서 날아오르는 파편과 부서진 건물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아직도 그때의 경험으로부터 동요하면서 그는 말했다.

이웃인 카흐타안 하산 살마안\*(Kahtaan Hassan Salmaan)은 불시의 폭격을 퍼붓는 미국의 비행기를 아마도 이라크의 대공 무기들이 맞혔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행기가 처음에 날아와서 3개의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중 하나가 집에 명중을 했으며 다른 두개는 멀리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무너진 집 옆의 튼튼한 지붕 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묶여있던 소가 죽었다. 집에서부터 그들을 알 킨디 병원으로 실고갔던 차가있던 장소 앞에 차가 주차되었던 곳까지 피해자의 피가 말린 흔적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검을 실어나르기위해 만든 나무 판들이 소형트럭의 뒷방울이 굳어진 뒤칸에 아직도 실려있었다. 폭탄의 파편들은 이미 군 보안요원들에 의해 수거된 상태였다. 양쪽의 증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것들이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점에서는 안에 VOLEX라고 적혀있는 구멍이 뚫린 사각형 알루미늄 박스가 발견되었다.

**카라다트 미르얌(Karadat Miryam) 주상 복합 지역**

3월 24일, 몇 명의 IPT 회원들이 최근에 폭격을 당한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지점은 지상층에는 상업적 가게들이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삼,사층 건물들이 있는 카라다트 미르얌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근처에 어떤 군이나 정부 시설물도 없었다. 이 건물의 창을 덮고 있던 거의 모든 창문들과 창틀들과 철제 대문들이 모든 층에서 못쓰게 되었다. 이 광대한 피해의 결과를 불러온 거대한 폭발은 최소한 약간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디 알 카드라(Hady Al-Khadra) 2층집**

3월 24일, IPT 회원들은 미사일에 피해를 당한 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하디 알 카드라 지역에 있는 2층 집이었다. 폭탄은 지붕을 통과해서 들어왔고 2층에 있는 침실로 보이는 방 바닥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몇몇 여성



가수들의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이 벽에 걸려있었다. 일행들은 공격이 있었던 당시에 집에 있었던 가족들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은 현재는 다른 가족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집주인의 형제는 우리에게 아랍어로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는 녹음해서 나중에 번역하였다. 그는 폭탄이 3월 2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있거나 저녁 준비를 하고있을 때 떨어졌다고 했다. 당시 집에 8명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알 야묵(AI Yarmouk) 병원, 3월 23일**

3월 23일, 덕 존슨(Doug Johnson), 로버트 투르콧(Tobert Turcotte) 그리고 주니드 제로부칸(Jooneed Jeerburkhan)을 포함한 몇 명의 IPT 회원들이 알 야묵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라크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이 대학 병원은 알 만수르(Al Mansur) 병원, 알 킨디(Al Kindi)병원과 더불어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받도록 지정되어 준비를 한 세 개의 치료기관 중 하나이다. 미국인들이 포함된 많은 외국인 의사들과 외과의사들이 전쟁상황에 이들 종합병원에서 봉사하기위해 바그다드에 있었다. 환자중 하나는 일반적 마취아래서 수술을 막 받고 나온 25살의 라합 웨다드 모함마드(Rahab Wedad Mohammad)였다. 그녀의 오른쪽 뺨은 부어 올라 있었고 오른쪽 팔뚝에는 붓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병원의 여성 병동의 한 여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막 수술을 한 힘줄과, 신경 그리고 혈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의하면, 라합은 폭탄이 근처에 떨어질 때 하이 자미야(Hayy Jamiya)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집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기 3일째 되는 토요일 저녁이었고, 그녀는 오른쪽 팔의 힘줄을 심하게 상하게 한 파편을 맞았다.

자하 세헤일(Zaha Seheil)은 반대편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6살 이다. 의사는 그녀가 등뒤에 맞아서 척추를 다쳤고 허반신 불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성병동에서, 10살의 루살 살림 압바스\*(Rusul Salim Abbas)는 가슴과 오른손에 파편을 맞았다. 그때가 폭격이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가장 심한 폭격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가 파편을 맞았을 때 그는 문 근처로 갔었다>고 그의 아버지인 살림(Salim)이 그의 침대의 귀퉁이에 앉아서 말했다.

33살의 살라 메흐디(Salah Mehdi)는 근처에서 미사일이 폭발할 때 아마리아(Amariya)의 주거지역에서 토요일 저녁에 거리를 걷고있었다. <나는 단지 커다란 불덩이를 봤고 의식을 잃었어요>라고 그는 어렵게 말을 했다. 그는 복부와 오른손 그리고 오른쪽 귀에 파편을 맞았다.

다음 침대에는 폭탄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폭발했던 금요일 저녁에 알 쇼르타(Al Shorta)의 주거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12명의 가족 중 하나인 12살난 오마르 알리(Omar' Ali)가 있었다. 거기에는 폭격 첫날 저녁에 부상을 당한 두 아이의 아버지인 57살의 마지드 마흐무드(Majid Mahmoud)도 있었고, 토요일 밤 등과 양쪽 팔과 다리에 부상을 당한 어린 딸의 아버지인 36살의 후세인 자심 플레흐(Hussein Jassim Fleh)도 있었다.

그것들이 미국의 미사일과 폭탄이었거나 혹은 이라크의 대공포가 떨어진 것이었는가? 이들 방문들이 만들어낸 미묘한 병원 분위기와 탄도들의 증거들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때문에 나라 전체에 걸쳐 많은 다른 병원들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부상들의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려웠다. <파편이 어디에서 나왔건,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강요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부상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을 촬영하던 이라크 TV 기자가 언급했다.

일행들은 부상자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7월 14일 다리 거리의 서쪽으로 약 두블릭 떨어진 주거지역**

3월 22일, 스투어트 브리싱아(Stewart Vriesinga)와 웨이드 허드슨(Wade Hudson)은 아마르 빈 야시르(Amar Bin Yasir)거리와 자미야(Jamiaa)거리 사이에 있는 7월 14일 다리 거리의 서쪽으로 약 두블릭 떨어진 주거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최근의 이 두 거리를 잇는 거리 한복판을 넓게 돌로 나뉘버린 2~3미터 깊이의 분

화구를 지나갔다. 서쪽방향의 교통난으로 길은 막혀있었다. 그들은 이 분화구 양편으로 조성되어있는 커다란 공원을 보았다. 분화구 주위로 어떤 건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IPT의 주 운전기사인 모하메드(Mohammed)는 정원이 공공 시설이 아니라 그의 아저씨중 한사람 소유인 개인 집에 연결되어있는 개인 정원이라고했다. 자미야 거리 한쪽 귀퉁이에 그 분화구를 만들어낸 폭탄의 폭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유리창들이 깨진 많은 작은 집들이 있었다. 비록 이 사고로 심각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거나 민간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일부 폭탄이 의도되었던 목표물에 맞지 않거나 비 군사적 목표물을 향하는게 재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상 복합지역**

3월 22일 에이프릴 헐레이(April Hurley), 제히라 하우파니(Zehira Houfarā) 그리고 로버트 투르콧(Robert Turcotte)은 주상 복합지구 전체 블록의 거의 모든 창문들이 깨져 나가있는 것을 보았다.

주: 이들 보고서들을 설명해주는 사진들은 이 이메일에 첨부될 것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보낼 것이다. 사진 설명들은 아래에 지목된 파일이름들과 조합된 것이다.

030325 Al Kindi Hospital 1-sm.JPG

030325 Al Kindi Hospital 2-sm.JPG

알 킨디 병원의 피해자들, 3월 25일

030325 Farm House 1-sm.JPG

thru

030325 Farm House 12-sm.JPG

030325 Farm House 14-sm.JPG

카흐탄 하산 살마만, 나에미 가족의 이웃, 3월 25일

030326 Near Yarmouk 1-sm.JPG

thru

030326 Near Yarmouk 7-sm.JPG

일요일 저녁에 폭격당한 알 야묵 병원 근처의 알 카디시에 지역에 있는 7가족의 집의 블록

Copy of PICT0091-sm.JPG

Thru

Copy of PICT0098-sm.JPG

하이 드자미야(Hayy Djamiya)지역에서 온 야묵 병원의 피해자들, 3월 23일

PICT0001-sm.JPG

Thru

PICT0005-sm.JPG

나에미 가족의 집, 3월 25일

PICT0006-sm.JPG

사미르 마흐무드 아흐마드, 나에미 가족의 이웃, 3월 25일



PICT0027-sm.JPG

하심 압둘 다이엔, 3월 26일

030326AmarAlYarmoukCB.jpg

아마르, 알 유스피아 마을에서 온 7살 아이, 3월 26일 부상(3월 26일)

030326MueenAlYarmoukCB.jpg

무엔, 아도라에서 온 8살 아이, 3월 22일 부상(3월 26일)

030324NadaAdnanAlYarmoukCB.jpg

나다 아드난, 14살, 3월 23일 부상(3월 24일)

030326FuselSalemAtmasAlYarmoukCB.jpg

루셀 살렘 아트마스, 10살, 로살라에서 옴(3월 26일)

■ 4월 3일 배상현, 임영신 귀환 기자회견문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귀환 기자회견문

통신이 두절된 바그다드의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사선을 넘었다.

3월 30일 새벽 2시 15분, 폭격 속의 바그다드에서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조사하던 한국 반전평화팀원 배상현 씨가 국경을 넘어 암만에 도착했다. 전화국의 폭격으로 모든 통신이 두절된 바그다드의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바그다드 현지에 남아있던 한국반전평화팀 세 사람의 기록과 증언을 들고 사선을 넘어 암만에 다다른 것이다. 도착한 그의 등에는 선연한 핏자국이, 그의 얼굴과 손에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국경을 넘는 길 폭파된 도로의 함몰지점에 차가 전복되면서 2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함께 차를 타고 있던 4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부상자는 국경근처 UNHCR 난민캠프의 의료팀으로 후송되고 배상현씨는 다른 차편으로 새벽녘 암만캠프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반전평화팀 캠프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팀원들과 현지의 사정, 국경을 넘어선 목적, 이후의 활동계획들을 나눈 후 안정을 취했다.

### 배상현 팀원의 증언을 통해 듣는 바그다드 현지의 상황

바그다드 현지는 집중폭격이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전시체제로 들어갔다.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아닌 모든 땅에는 참호가 만들어졌고, 거리에는 탱크와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는 정부로부터 전투와 자기 방어를 위한 총이 한 자루씩 지급되었다. 이라크의 시민들은 이 폭격 속에서도 피난이 아니라 이 전쟁을 끝까지 맞서 싸우기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바그다드 현지에 남아있는 평화 활동가들의 상황과 활동

저녁 6시 이전까지는 병원방문, 폭격지점에 대한 방문과 조사 등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던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이들 전부터 하루 한시간으로 외출 시간이 제한되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활동가들은 개별적인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라크 비밀경찰의 감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특히 사진 촬영이나 외부로의 메일 송신 등의 통신활동의 경우 스파이 행위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추방 혹은 행위에 대한 통제가 시작된다.

그러나 폭격지점에 관한 조사와 증언 작업은 이라크 정부의 안내 속에 폭격당일이 아닌 하루 후에 현지 방문과 폭격피해자들과의 인터뷰 등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국 이라크평화팀의 세 사람은 현지에 남아있는 국제 이라크 평화팀 활동가들과 함께 폭격지역을 조사하고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왔다. 한국팀의 배상현씨 경우도 현지에서 카메라로 폭격지역을 촬영하다가 이라크 경찰 당국에 발각이 되어 머물던 호텔에서 쫓겨나 정수시설에 머물다가 통신의 두절을 뚫고 이제까지 기록한 평화의 증언을 전하기 위해 사선을 넘은 것이다.

국제이라크 평화팀(IPT)의 메일 송신 담당자는 하루 하루의 증언과 기록들을 외신기자들의 위성을 통해 수신하다가 정부 당국에 발각이 되어 이틀 내에 출국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가 아니라도 이라크는 전화국의 폭격으로 이미 건물 내 내선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이 두절이 된 상태이며,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국의 의지를 밝힌다면 언제든 이라크를 나올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는 평화운동가들의 퇴로를 열어둔 상태이다. 암만 현지에도 이삼일 동안 십 여명의 국제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로부터 출국해 도착한 상황이며 그들을 통해 바그다드 현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출국행렬의 반면, 이틀 전 국제 CPT멤버 9명이 이라크로 입국을 하는 등 폭격중인 바그다드를 향해 밀입국이라도 감행하려는 국제활동가들 수십명이 이곳 암만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국민의 보호는커녕 출입마저 거절한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의 기본권 침해

바그다드 현지에서 한상진, 유은하, 배상현씨 등은 도움을 얻기 위해 두 차례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첫 번째 방문시 그들은 출입조차 거절했다. 이에 대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의 공식적인 항의와 성명발표 후 외무부의 조치로 두 번째 방문 시 입장은 허가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한 사람씩 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정문을 제외한 모든 문들이 닫혀있어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신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한국 대사관의 외교정책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사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지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조처될 때까지 지속적인 항의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2003년 4월 3일

### ■ 4월 3일 배상현 입장글과 성명서

## 국적포기 논란에 대한 저의 입장

저는 이라크 현지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이 수시로 폭격을 당해 죽고 부상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진하게 뛰어 놀 어린이가 척추에 파편을 맞아 하체가 마비된 모습, 부모를 잃고 온몸에 파편이 박혀 신음하는 어린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잃고 온 몸에 봉대를 감은 부모의 통곡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도저히 오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에도 폭탄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야만성에 치를 떨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현재의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쟁초기 미국은 CNN방송을 통해 후세인이 병원에 숨어 있는 정보가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명분과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여차하면 병원이든 학교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하겠다는 속내를 이미 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민간인 학살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 더러운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담한 비애를 느낍니다.

모든 통신이 거의 마비된 바그다드에서 한국대사관으로 찾아간 저희들을 출입금지 시켜 놓은 우리 외교부, 바그다드에서 우리 조국은 자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이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분노하고 반대합니다.

저와 현지에 남은 몇몇 사람들은 만일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하게 되면 국적을 포기할 생각을 했고 장시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국내외의 팀원들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저의 귀국은 현지 평화팀과 파견단체의 권고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라크에 재입국을 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길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저 또한 파견단체와 평화지원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3일 배상현



### 성명서

먼저 저를 비롯한 한국의 이라크반전평화팀에게 보내 주신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 시작한다해도 그 결과는 인류에게 대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반전평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경남평화연대 소속으로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민간인들의 절대적 생존과 관련된 민간시설에 대한 미군의 폭격을 막기 위한 인간방패의 역할과 피해조사 활동 등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제한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에 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귀국하게 된 것은 현지의 반전평화팀과 파견단체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피바다가 된 바그다드에서 저의 신념은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시설만 정밀하게 폭격을 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시로 민간지역에 무차별로 투하되는 폭탄으로 전쟁과 무관한 어린이들과 선량한 민간인들의 사상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고, 사회적 기반 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바그다드 시민들의 생존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그다드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검은 연기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의 통곡과 비탄과 분노가 하늘에 가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 국민들이 흘리는 피와 통곡의 눈물을 안다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이 말하는 해방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쟁의 고통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라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적대감을 가진 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동참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더러운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말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이라크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고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잔인하고 더러운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함으로써 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인류의 대 재앙에 동참한 죄책감과 비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오직 미국의 전쟁광기를 달래는 한가지 방법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손아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불행한 민족의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다수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진정한 국익을 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파병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3일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경남평화연대 파견자 배상현

### ■ 4월 3일 국적 포기과 관련한 배상현, 임영신의 입장

## 국적 포기와 관련한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임영신 씨와 배상현 씨의 입장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임영신 씨와 배상현 씨가 요르단과 이라크에서의 반전평화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운동과 반전평화를 위한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두 사람의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이 이야기한 국적 포기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임영신 씨는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을 어긴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한국 또한 파병을 통해 참여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신 씨의 국적 포기 선언은 UN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쟁을 도발한 미국, 영국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 협력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전쟁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하여 국가주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임영신 씨는 그러한 국가주의는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이며, 그러한 국가주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신 씨는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사라진 후에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할 것이며, 재외동포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의 반전평화 운동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배상현 씨의 경우 자신은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소속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지금 국적포기와 관련하여 소속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적 포기가 불러올 수 있는 논쟁과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국적 포기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는 현재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적 포기 관련 논의가 파병 반대와 전쟁 반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내에서 국적 포기 관련 의사가 타진된 것은 이번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국적 포기 의사를 존중하며, 이것이 전쟁반대와 파병반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003. 4. 3.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 4월 3일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 노무현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팀원들인 배상현, 오김숙이, 은국, 임영신, 허혜경입니다. 저희들이 이 더럽고 야만적이기만한 미국 주도의 이라크 학살 전쟁을 전세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신념으로 직접 이라크 땅에 들어가 활동했으며, 오늘 귀국한 배상현은 바로 어제까지도 목숨을 걸고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하며 이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자신과 무관한 전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죽어 나가고 부상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이라크 어린이들이 척추에 파편을 맞아 하체가 마비된 모습, 죽어 있는 어린 자식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수백, 수천 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전과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그다드에는 100여명 남짓한 평화운동가들이 바그다드에 남아 전쟁이 시작된 이 순간까지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가로, 종교인으로, 여성운동가로, 정치운동가로, 기자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병역거부자로, 학생으로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스무 명에 달하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원들은 먼 이라크 땅에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으며, 여전히 한국인 유엔하씨는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바그다드 정수시설에서, 병원에서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암만에 머물며 난민구호 활동을 준비하던 박기범씨 외 세 명은 바로 어제 국회의 파병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그다드로 향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결국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희가 바그다드에서 직접 만나 본 아름다운 이라크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섭고 외로운 바그다드에서 평화를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반전 평화팀 다섯 분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 시위의 함성 속에서 당선되고 취임사에서 '당당한 외교, 새로운 한미관계'를 약속했을 때 이제까지의 의존적이고 굴욕적인 외교와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무런 명분없는 학살전쟁에 '국익'을 내세워 국민들을 학살의 참여자로 삼으려 하시다니요. 더구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이라크전 지원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옹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며, 수천만의 세계 민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력의 잔인한 폭력 앞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 전쟁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국제 사회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가공할 폭력 앞에 이미 많은 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있었으며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어린이들이, 세상에 대한 저주와 증오를 안고 살아갈 것

입니다. 폭력과 증오의 악순환은 계속 재생산 될 것입니다. 공병대와 의료 지원만 했다고 이 처참한 살육전의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파병 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런 부도덕한 전쟁에 정부가 동참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의 파병은 바그다드에서 목숨 걸고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하는 한국인 다섯 명에 대한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 부도덕한 전쟁 범죄에 단지 극소수의 국가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 반전평화팀원들은 이번 파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바그다드에 머물러 있는 팀원들과 함께 싸울 것을 밝힙니다.



■ 이라크반전평화팀 이후 계획에 관하여 (4월 6일, 최혁팀장)

지원연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락이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주초부터 이라크 재입국 문제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문제들 처리하느라고 인터넷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요.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일주가 지났는데, 느낌은 거의 한달 이상인 것 같군요.

각설하고, 어제까지 기범이가 바그다드에 잘 도착했는지 상황이 파악이 안되어 일손이 안잡혔었는데, 다행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전이 확인되었더군요. 암만팀은 어제 회의를 통해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강의 내용은 지원연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무엇보다도 먼저 반전평화팀 활동의 기초와 방향을 새롭게 정했어요.

이제까지는 주로 이라크 입국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록 및 취재 등 개인적 활동을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어 활동해왔지요. 그러나 이번에 재입국팀이, 비록 1명밖에 이라크에 가지 못했지만, 이라크에 간 것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반전평화팀 차원에서의 이라크행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어요. 물론 뒤에 말하겠지만, 추후 전쟁 이재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라크행은 추진하겠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을 경험하고 기록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은 의미가 없고, 실제 실현 가능, 그리고 반전평화팀이 받게 될 여러 부담 등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미 염창근씨가 잘 처리하고 있겠지만 이라크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암만에 오고자 하는 분들은 더이상 반전평화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임을, 암만 반전평화팀 차원에서는 이라크 입국을 더이상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면 하네요. 관련해서 미리 말하면 신성국 신부님이나 이창용씨는 여전히 이라크 입국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반전평화팀 차원의 논의를 존중해서 개인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드리지요. 그래서 두 분은 더이상 반전평화팀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활동하시기로 했어요.

2. 반전평화팀은 향후 활동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했지요.

하나는 상황실 역할이에요. 아직 바그다드에 우리 평화팀원이 두분이 계시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분의 안전과 관계된 상황 파악, 지원연대와 언론 등을 상대로 하는 전쟁 및 한국 및 외국 반전평화팀 활동 브리핑 업무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사실 한국팀도 그렇고, 휴먼실드 등 외국 평화운동가들도 많이 줄어서 이전처럼 시위나 집회를 중심으로 조직하기는 더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암만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래서 반전 집회나 시위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외국 친구들과 연대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암만에서 공식적인 소식지를 낼 예정입니다. 전쟁 상황(아랍과 평화운동,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과 반전평화팀 활동, 시기, 회의결과나 요청 사항 등을 정리해서 매일 보낼 거예요.

두번째 주력 활동은 전쟁 이재민 지원 사업(일단 계가 잠정적으로 만들어 본 용어지요. 난민구호활동이 통용되는

말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쟁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침략자와 지배자의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는 난민구호 활동과 달리 전쟁피해의 당사자이자 침략 전쟁으로 파괴된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를 스스로 재건하는 이라크 민중의 자구적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며,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민도 마음에는 안들지만 달리 생각나는게 없어서요. 논의 부탁해요.) 준비 및 실행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재정과 물품, 필요 인력 등을 준비하겠지요. 암만에서는 현지 국제구호단체들, 구호활동에 참여하려는 여러 국내의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이라크 현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도, 특히 전쟁 전이라도 이라크 민중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지원 물품을 가지고 이라크에 입국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생각입니다. 한상진씨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알아보고 있고, 암만팀도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로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강의 구상만 말씀드리면,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실제로 바그다드라든지 바스라 같은 지역에 들어갈 방도는 매우 희박합니다. 미국이 거의 통제를 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적십자 같은 기구가 아니면 대규모 물품 지원 같은 구호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 지 모르지만 기대나 희망이 너무 부풀려지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박기범씨처럼 가끔 이라크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작지만 돈이나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 물품 등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항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다 '인살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런 단체를 통해서 물품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큰 구호단체들도 돈 착복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적십자나 유엔은 침략전쟁을 사후적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물품을 보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라크 입국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만, 선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지요.

장기적으로 반전평화팀 차원에서의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은 이라크 현지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그다드나 바스라 처럼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지역에서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삶의 보금자리를 그들 스스로 재건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현재 바그다드에 있는 두분이나 아마도 한상진씨가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함께 할 현지인들과 관계를 모색하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기범이하고는 가기 전에 그런 일을 부탁해놓았지요. 한국, 암만, 이라크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그다드와 연락이 안되니까 믿는 수밖에요.

이라크 민중 지원활동을 위한 연대기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한국에서만 아니라 암만에서도 여러 단체나 개인들과 반전 평화가 아니라 지원 구호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게 바로 암만팀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보지요. 물론 여러분과 논의하고 더 알아 보아야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연대기구는 꼭 한국사람들로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두루 만나고 있지요. 사실 한국단체들도 별로 없고 정확한 의도가 계획이 무엇인지 불투명해서 앞으로 적잖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암만에서는 한국에서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모아지는 돈과 물품, 인력이 정확히 쓰여질 수 있는 경로와 방도를 준비하는 게 일이라고 봅니다. 연대기구도 그렇고, 이라크 들어가는 자격을 확보하는 것, 가서 활동할 지역과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 필요 물품 구입 및 전달수단 확보 등 실제 일이 진행되면 셀 수 없는 실무들이 필요하지요. 기초 작업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 인력 등을 추후 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요청할 거예요.

몇가지 미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앞서 말했듯이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 물품 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보내준 돈은 다 이라크 가는 사람한테 쥐서 없어요. 지금 대략 3000불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몇 만불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기동력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돈 문제는 나중에 이곳 캠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요청드리기로 하지요. 이제까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원 사업을 위한 연대기구가 구성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현재 구성된 암만팀이 반전평화팀의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을 준비하는 공식적 단위를 일단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아직 연대기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한 논의구조, 특히 개인들의 이러저러한 연락은 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연대에서 공식 논의를 해서 암만팀의 역할과 공식성을 명확히 부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원활동 재정을 미리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민감한 문제인만큼 미리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요. 답변 부탁하고요.

3. 마지막으로 암만팀 재편 상황을 말씀드리지요.

앞서 언급한대로 활동의 기초를 분명히 하면서 그 기초와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개인의 의사와 활동을 존중하는 방식의 체계에서 아주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집행 역량이 중심이 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라크 가거나 개인적 취재나 기록을 하는 개인들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상황 업무와 난민 구호 활동 등 암만팀에서 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집행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암만팀은 이런 기초에 모두 동의를 했고,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신성국 신부님과 이창용씨가 개인적으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성혜란과 주재일 등 기록, 취재를 하는 분들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남든 귀국했다가 다시 오든 암만팀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지요. 현재로는 저와 하운이가 암만팀에서 스태프로 장기적으로 활동할 거고요, 혜란이 재일이도 조만간 거취를 분명히 정할 때까지는 계속 팀원으로 함께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팀원은 바그다드 2인, 암만 5인(한상진씨 포함) 모두 7인이지요. 얼마전 한상진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단 반전평화팀원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지요. 하지만 숙소나 활동은 IPT와 하고 있지요. 계속 거취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보지요.

팀원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는 우선 팀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서 이지요. 지금까지처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혼란스러움을 없애고 지금부터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일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다양한 목적의 개인들과의 관계도 더 잘 정립할 수 있지요. 두번째는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팀원 아닌 사람들의 생활 비용을 팀에서 부담할 이유는 당연히 없지요. 신부님과 이창용씨는 사비로 같은 아파트에 살 겁니다. 앞으로 캠프 유지 및 사업비, 팀원들 생활비 등은 명확히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도 팀원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암만팀 활동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지요. 특히 영어 능력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와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부담이 너무 큼니다. 오해 없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현지에서도 팀원들을 늘리려고 합니다. 유학생이나 교민 가운데 반전 및 이라크 민중 지원활동 취지에 동의 하는 분들에게 팀원이나 자원 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일이 늘어나면서 국내 지원연대에 필요한 역량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식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지 신상 명세를 미리 보내주면 좋겠지요. 나중에 정말 다양한 실수가 필요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

언론 문제는 지원연대에서 모니터를 해서 인터뷰를 거절할 곳을 정해주었으면 해요. 신문사나 방송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요. 기준은 전쟁에 대한 편파, 왜곡보도를 입삼는, 지나치게 미국 영국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반전평화팀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사 일반을 하

면 문제가 되니까 구체적인 프로를 정해야겠지요. 앞으로 모든 언론은 제가 담당할 거예요. 사적인 인터뷰는 없지요.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깐 두서가 없고 너무 기네요. 대강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논의를 해서 매일 주세요.

이미 출국하기 전에 얘기해놓았듯이, 저는 우선 5월 중순까지는 머물 계획이지요. 그 즈음에는 일단 가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계속 여기 머물지, 아마 가더라도 금방 다시 오든지... 인살라~~~~~ 18일 이후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이번 재입국 추진 과정에서도 힘들었지만, 마음 편하게 일하려고 하고 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거론되는 것도 원치 않지요. 그냥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걸 내가 하는게 좋다는 공감이 있어서 남는 거라고 생각해주었으면 하지요. 특히 최근 암만팀 재편 및 향후 사업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팀장이라는 형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오래전부터 지원연대, 바그다드에 남은 분들과 어느정도 합의된 역할에 따른 것으로 정리해주었으면 해요. 사실 출발이 자발적인 개인들의 결사로 시작된만큼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두 잘 지내세요. 건강 상하지 말고요. 인터넷이나 전화 연락 자주 하도록 할게요. 앞 살라무 알이쿰~~~~~

최혁

ps.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주로 먹는거지요. 인편으로 보내는 건 불규칙하니까 fedex나 dhl같은 택배사를 알아 보았으면 하네요. 가능한 지 연락주세요. 그럼 필요한 거 부탁 좀 하게요.



■ 4월 8일 농성 결의문

<은국>

당신은 나에게 이야기한다. 전쟁은 터졌고 한국군 파병안도 통과됐다, 반전 운동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또한 묻는다. 왜 반전을 외치느냐고,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왜 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러한 당신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나의 무기력함과 우리 운동의 보잘것없음에 절망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한 가지만을 말할 것이다. 고요한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두 눈으로 당신에게 대답하겠다. 불가능한 꿈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의미이다라고 말이다. 이 시기, 추악한 전쟁에 맞서 이 농성장에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이다.

<오김숙이>

바그다드에 있는 기범에게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 "한국군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중단하라!"를 외치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성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라크의 아픈 현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하자는 마음을 만들려고 해. 요 며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지난 2일 국회에서 파병 결정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확산되었던 반전 평화의 기운이 움츠러들고 있어. 파병 결정이 되고 나니 함께 반전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허탈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 막 출발한 반전 운동이라 아직은 탄탄하지도 않아 그런 거라 싶고 우리가 이라크의 하루하루 침략 참상을 똑바로 보면서 농성을 계속한다면 기운을 북돋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 믿어.

이라크에서 보낸 글 봤어. 나는 아마 폭음 소리에 구부정 손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걸. 아니 당장 명동성당에 천막 치고 그걸 유지해 가는 일부터만 해도 걱정이 앞서. 전기도 전화선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명동성당 입구에 천막을 치는 일부터가 가능할까, 부활절을 앞둔 성당 측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등등.

하산한테 조금의 비상식량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두나르랑 꾸아꾸아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웃음 나누려는 기범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기 위해 내가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 찾는다는 마음으로 농성 만들어 갈게. 마음대로 약을 사 먹을 수도 없을 텐데 몸이 아프다니 걱정이야. 무리하지 말고 좀 더 쉬면서 하루 빨리 건강 회복해 가길 바래.

- 4월 8일 한국에서

<허혜경>

4월 2일, 우리 나라 국회는 미국의 더러운 일방적 침략에 손을 들어 주고, 온 국민들을 대량 학살의 공범자로 가담시키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파병 결정을 했습니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고 다치게 하며 인간성 자체까지도 처참하게 유린하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창 맑은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이라크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를 묻고 자라갈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소나기 같은 폭격이 계속되는 바그다드에서는 여전히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팀원 두 명이 소수의 각국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어떠한 신변 안전 조치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안전한 한국 땅에 있으나 나의 친구들이, 죽음과 공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라크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먼 나라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라크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싸우고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고,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실제로 저지시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영신>

사순절,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지금 이 추운 봄밤

벗들은 명동성당 앞 천막에서

불을 밝힌 채 파병 반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야 한다고

늦은 밤 마지막 전철 시간에 맞추어 일어서 놓고도

집에 돌아와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호텔 10여 미터 지점에 떨어진 포탄으로

새벽잠을 깨어 방공호로 내려갔다는 온하와 기범이,

이라크에서 급히 위성으로 걸려 왔다는 전화를 못 받은 불안한 마음…….

천막조차 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소중한 이들…….

바그다드에 머무는 마음으로

이 밤을 견디자고

포성을 견디는 마음으로 이 추위를 견디자고

두 사람이 남은 마음으로

우리 남은 몇 사람이라도

이 촛불을 꺼뜨리지 말자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우며

스티로폼을 깔고

몇 개의 촛불을 밝히고

바람에 현수막을 나부끼며

전쟁 중단을 위한

철야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참여하지 못한 채

잠든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늘 작은 촛불 한 자루라고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고



이 참담한 전쟁과 죽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속으로 속으로 되뇌이며  
 그 천막을  
 그 촛불을  
 벼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마음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생애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건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성당의 행사가 있어  
 천막을 건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드릴지  
 저는 그분이 향하는 곳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가만히 좇고 싶습니다.

### ■ 바그다드 리포트 1 (4월 12-14일, 임영신)

<1차 의약품 전달을 위한 현지 조사>

## 2003, 4월 14일-16일, 바그다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의료조사 리포트

### 1. 의약품 구입 및 전달을 위한 바그다드 의료현황

#### ▶ 4월 14일-16일 1차 조사 결과

바그다드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약탈로 문을 닫은 상태, 약국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진들은 폭격, 약탈과 함께 거의 병원에 나타나지 못했고(교통수단, 통신수단이 전혀없었고 거리에 다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 심지어 병원에서 매일 기자들이 죽는 정도로 기본적인 치안유지가 되지 않았다.) 현재 바그다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간의 병원들은 의사 두세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든, 전체 병원을 운영하든 발런티어 형태로 의료진을 재편하고 자체 치안을 위해 민병대 혹은 미군의 호위를 받는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담 시티의 병원들의 경우 어제까지 출입이 되었지만 오늘은 출입을 거절당했고, 심지어 의료진마저, 만수르 병원의 경우 가족들조차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약을 전달하거나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은 23곳의 공공병원이다. 물론 개인병원을 임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이 있는데 병원임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돈을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서 우선 공공병원 중심의 보다 깊은 조사와 연대망을 구성하는 것 또 같은 병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제단체끼리의 정보교환과 공유의 테이블을 현지에서 만드는 것 등이 이곳에서 해야 할 시급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사담 정형외과의 경우 하루 최소 20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의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마취제 샘플을 가지고 마취전문의사를 만나 효용여부에 대해 함께 상의했다. 그녀는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는 충분한 의약품이 없어 거의 국부 마취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간 포폴이라는 전신마취제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써 본적이 없는 신약이라며 떨 듯이 기뻐했다. 그들의 의료장비와 수준이 12년의 경제체제 전인 1991년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섯 개의 병원 중 우리가 출입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병원은 세 개였다. 그러나 사담정형외과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의 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뇌 관련 환자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취제 및 의약품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치안, 의사들을 위한 교통수단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일 해온 열명의 의사가 하루에도 5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도운 사담정형외과의 경우, 오늘 내일 중 약품이 떨어지는 현실에 처해있었다. 팔레스타인 호텔 폭격으로 로이터 기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도 이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의사인 자크 역시 그들과 함께 오늘까지도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다. 외국인 의사가 진료에 참여할 만큼 투명하게 그들의 활동모습을 공개하고 있었고,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발런티어로 일하고 있는 사담 정형외과에 1차 마취제를 전달하고 그들의 리포트에 따라 추가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할 것이 현재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후 한국에서의 추가 의료진 지원, 약품 지원과 관련해 이 병원을 통해 조사, 지원 전달, 참여,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한 약품전달 및 효과평가의 샘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2차 암만팀에서 수송될 의약품의 경우 16일 오전 2차 취재 및 마취약 전달을 하며 받게 될 그들의 요청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아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의약품을 수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프랑스의 국제의료원조팀의 경우 이미 전쟁 중과 후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6톤의 외과수술용 도구들과 의약품을 가지고 비행기로 암만을 향해 떠났다고 한다. 그들 역시 육로를 통해 그 의약품들을 이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암만에 머물고 있는 그 팀과 함께 연대를 하는 것도 이후 의약품 관련 긴급지원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상진 팀장이 오랫동안 관계하며 함께 일했던 그 단체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연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베이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그 단체를 한 번 더 만나고, 저녁 이곳에 와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한 번 그들의 계획, 자원, 활동의 결과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단체들의 현황, 그들의 활동계획 등에 대한 리포트는 내일 아침 암만으로 전송가능할 것이다. 오늘 오전 1차 마취제를 전달 한 후 의료진과의 2차 미팅을 갖고 암만에 필요한 약품 리스트를 위성전화로 전달할 것이다. 현지에서의 의료진 미팅, WHO 미팅 결과를 가지고 보건의료 연대와 함께 의약품을 구입해 이번 금요일 혹은 토요일 정도 이곳에 전달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 난민구호 활동을 위한 바그다드 현황 브리핑

▶ 국경택시

이곳에서 암만으로 가는 택시도 1700불 수준, 그곳에서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자없이 통과가 가능하지만 프레스 카드, 서약서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국경을 넘자마자 미군이 체크를 시작할 뿐 아니라 중간 중간 미군 체크 포인트가 있다. 요르단 국경을 통과할 경우 가능하면 국경부터 바그다드까지 쉬지 않고 오는 것이 좋다. 지난주 이곳에 도착한 강경관 피디의 경우 휴게소에서 KBS팀이 카메라를 빼앗기는 등 약탈을 당하고 그 팀이 도주해, 바트당에 잡혀가 재판과 받고 풀려난 후 도착했다고 한다. 중간에 우리가 머물렀던 휴게소들이 폭격을 당한 상태이며 그곳에서 오래 머물 경우 약탈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기름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쉬지 않고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우리가 탔던 국경택시의 경우 1300달러에 오기로 했지만 도착하자 150달러의 기름값을 요구, 지금은 기름값을 별도로 받는다고 주장, 해서 100달러를 주고 돌려보냈다. 미리 기름값 여부를 체크해야 함.

▶ 숙소

알파나 호텔 룸 당 50달러, 웨라톤 호텔 100달러 함무라비 호텔 등을 50달러 수준에 쓸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안 되는 영역에 있어 KBS, SBS 등의 언론사들은 웨라톤과 팔레스타인 호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다. 그러나 가격에 상관없이 1천여 명이 넘는 취재진들로 어느 호텔에도 방이 없는 상태 (한겨레도 조성수씨 방에 얹혀있는 상태, 암거래의 경우 웨라톤 호텔 방 하나에 700달러의 커미션 요구)

▶ 교통

택시를 비롯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알파나의 경우 호텔 앞까지 차가 올 수 있으나 웨라톤의 경우 불가능, 현재 차량은 하루 100달러 수준(모하메드-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100달러 이하로는 가격을 조정해 주지 않고 있다.)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볼 경우 50달러까지 가능(수하드와 함께 일했던 아미르가 우리를 위해 50달러 선에서 하루 종일 일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한 상태)

▶ 치안

오늘 아침부터 알파나에서 웨라톤까지 전신검색 없이 갈 수 없는 상태, 어젯밤부터 밀착 경비에 들어갔다. 어제 있었던 웨라톤 호텔 앞 총격전의 여파로 추정됨, 그러나 팔레스타인 호텔, 알파나 호텔 등은 여하튼 미군의 경비로 안전한 상태, 때문에 세 호텔에 모든 언론인이 모여 있고, 여전히 평화활동가들은 알파나에 머물고 있다.

▶ 통행

프레스카드가 없이는 미군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할 수 없다. 국경을 넘어 오는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알파나에서 웨라톤을 가는 경우도 매번 미군이 수색 및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거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프레스 카드가 필요한 상황, 암만에서 만들 수 있으며 사진 세 장, 한국에서 언론이라는 확인 팩스가 필요하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프레스 센터에 사진, 팩스와 함께 방문하면 만나질 정도에 나온다. 그 이후 그 프레스 카드에 국경통과를 위한 서약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라크에 들어와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관계로 반드시 암만에서 만들어 와야 한다.

▶ 식량

어제부터 시내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몇몇 상점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야채가게, 식당, 식료품 점 등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계란, 물, 야채(토마토, 감자, 양파, 고구마, 오렌지, 오이, 당근 등을 구입가능) 시민들의 경우도 집집마다 이미 충분한 식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소 한 달 이내에 식료품 구입라인이 정상화 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식량문제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 화폐

들어오기 전 이라크 돈을 전혀 쓸 수 없다고 해 최대한 1달러 짜리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호텔 이외에서는 달러보다 이라크 돈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이라크 돈 3천 디나르가 1달러 수준, 한 끼 식사는 1달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사중 총성을 듣는 위험등은 감수해야한다.) 알파나나 팔레스타인 호텔의 경우도 3달러5달러 수준에서 식사가 가능, 그러나 부유층이 살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기자들의 경우 4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고 무려 50달러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

3. 의료 외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조사

바그다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은하, 임영신 두 사람의 팀원은 한쪽은 고아원 및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조사, 한 사람은 의료시설 및 의료지원 경로에 대한 조사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틀간 본격적인 리서치에 들어갔다. 의료에 대한 일차 리서치의 결과는 위에 정리된 대로이며 아동관련 리서치는 아래와 같다.

▶ 장애인 수용시설

기범씨나 은하씨가 매일 방문했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MISSIONARY OF CHARITY의 경우, 안정된 운영진, 외부로부터의 재원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을 찾아 이 위기들을 잘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은하씨가 16일 국제활동가들과 같이 방문한나 숙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관이었고 정부가 마비되자 직원들이 두 달 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아무 의욕이나 계획도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어떤 돌봄도 없이 마당에 방치된채 심하게 달려드는 파리를 쫓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널부러져 있었고, 이에 대해 선생들은 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들이 받



던 월급은 이라크 돈으로 6천디나르, 현재의 환율로 약 20달러 수준이다. 11명의 직원들이 80여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들의 월급을 모두 합해도 220불인 것이다. 아이들의 식량 및 운영비를 감안해도 500불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유은하씨의 경우 그곳으로 숙소를 옮기고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및 인수를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이 의료쪽만을 지원할 것인지 유은하씨의 경우처럼 좀더 폭넓게 전후의 사각지대,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지 판단이 필요하다. 내일 그 시설에 한겨레 팀과 함께 다시 한 번 가 볼 예정이며 은하씨가 오늘 하루 더 리서치를 해 그 시설 운영을 위한 정확한 경비, 현재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한국팀이 입국할 때 그 물품들을 가져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함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용의 경우 은하씨는 은하씨 개인모금액을 쓰기 원한다. 한겨레 의약품 캠페인 비용으로 2차 의약품 지원을, 반전평화팀에 모금된 금액으로 장애우 시설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1차 리포트를 마치려 한다.

▶ 현지 수급이 필요한 물건

- 1. 전기밥통, 전기포트 : 통금, 식량사정 등으로 밥을 해먹을 도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
- 2. 쌀, 한국에서 온 반찬들
- 3. 스포츠 샌들
- 4. 양초와 랜턴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 바람이 너무 강하다. 반드시 선크림, 모자, 샌들 등을 준비하기 바람 그리고 영어가 안되는 경우 전쟁전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면적으로 미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영어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영어가능자와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로 사람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물품수송 배분 등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 암만에서 이곳까지의 물품 수송을 위한 최소의 인력, 이후 사업을 위한 2차, 3차 리서치를 할 수 있는 2-3명의 인력이 2진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적합할 듯하다.

■ "Al Hanan 중증장애인의 집"에 대한 리포트 (4월 20일, 유은하)

## "Al Hanan 중증장애인의 집"에 대한 리포트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4일 처음으로 Missionaries of Charity에 방문한 이후,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그곳에 들러 아이들 상황을 보았습니다. 당시로는 이라크 당국의 감시가 심한 상태였고, 제가 접촉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격과 교전이 심할 때는 그곳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하는 곳이다 보니, 정부가 떠난 다음에는 오히려 통제가 없어지고 오래 소식이 끊겼던 주변 사람들과 수녀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고, 미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호품을 전달하는 상황여서, 일단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음이 쓰였던 것은, 정부가 운영하던 고아원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지금, 장애인 고아들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이 이뤄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들은 적은 있는데, 어디 있으며, 방문할 수 있는지도 모르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 15일 이탈리아 평화운동가 마리넬라와 그 친구 피에트로, IPT 마틴 그리고 제가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이름은 Utafia Avenue에 있는 Dar Reiet Al-Qasareen(장애인의 집)이었는데, 실제로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이름은 Dar Al-Hanan(자비의 집 혹은 돌봄의 집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네요)이었습니다. 첫날 왔을 때 제가 지켜본 장면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찍은 필름을 어떻게든 한국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월급이 2달 동안 지불되지 않았고, 85명의 아이들 중 가정이 있는 40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45명은 전쟁 중에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전에 일하시던 36명 중 많은 분들이 차가 없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일하려 올 수가 없었으며 14명 정도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머물러 있는' 수준이지, 이곳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던 거죠. 수용되어 있는 장애 아동들은 그저 자기 침대에 널부러져 있거나, 아무테나 나와 누워 있는 형편이었죠.

급하게 챙겨갔던 사탕이랑 설탕, 과자 등을 일하시는 부인에게 드려서 나눠드리게 했더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던져주는 수준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셔너리 오브 채리티의 아이들이 비록 장애아동이긴 하지만, 수녀님들과 주변의 봉사하는 분들이 계속 돌아보고 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바에 비하면, 이곳의 아이들은 표정 자체가 달랐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인지 몸에서도 심한 냄새가 나고, 파리 떼가 달려들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전쟁 중에 이곳이 음식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주변의 이라크 가정에서 조금씩 자신들의 음식을 이곳에 가져와서 나눠주고 있었고, 미군이나 조금씩 들어오는 구호단체들이 식량들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필요한 게 당장 급한 식량이나 의약품보다, 이곳에서 원래 일하던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받던 월급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곳의 행정을 회복하고, 직원 한명 한명과, 여기 있는 장애인들의 명단과 상태 등을 파악해서(이곳의 고아 장애아동들 대부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일하는 분들이 그냥 부르려고 싶은 대로 이름을 지어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그조차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П.П)

저는 의사를 도와 일하는 간호사 브남 하미드 부인이 쓰던 사무실에 같은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진료실 겸 물리치료 비슷하게 썼던 방 같은데,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사무실 구석에는 적십자에서 주고 간 식수가 쌓여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치곤 괜찮은 곳이지요^^

어제(4월 19일)까지 일터인 이 고아원에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29명, 아직 7명 정도가 돌아오지 않은 셈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원래 받아 온 봉급에다가, 지금의 물가 사정을 감안해서 17500(약 7불)디나르를, 원래 이분들이 받아 온 날짜인 20일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07.500 디나르(1달러 당 2500디나르로 계산했을 때 약 203달러)가 필요하죠.

전쟁 후인 지금, 많은 인도주의 구호단체들과 사람들이 조사하러 들르고 의약품과 식량 등을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일꾼들이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들르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개전이 되자 이곳 매니저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고, 6개월 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돌아와서 이곳을 살피고 있지만,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곳 시아파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주고, 대신 여기서 쓰던 차를 가지고 가서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가 났고, 다시 이맘에게 따져서 다시 차를 받아내긴 했는데, 문제는 이맘이 이 고아원을 자신의 세력 확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맘이 고용해 온 두세 사람은 직원들을 회유해서 외국인 구호단체가 가져온 물품들을 이맘이 관리하게 하고, 운영을 그에게 맡기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이맘은 이런 장애인 고아원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곳의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언론과 구호단체들이 매일 드나들기 시작하자 그들의 새로운 직업은 '한 사람당 1달러씩 받아내기 П.П.' '식량 빼돌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7일, 이곳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 11명에게 월급을 드렸습니다. 그가 준 12.000디나르(4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9명에게 같은 금액을, 원래, 12.000디나르 받은 아무 칼립(칼립 아빠^^)과 14.000디나르 받은 움 제이남(제이남 엄마, 매니저를 대신해서 일해 온, 이곳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에게는 100디나르씩 올려서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릴 때는, 전쟁 중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장애인 고아들을 돌봐준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있고, 가능하면 이곳을 운영하고 싶긴 한데, 가능할지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있고, 다른 좋은 운영자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저

는 떠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이곳 사람들은 이맘을 싫어하고, 그는 이 고아원 운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맘에게서 월급을 받아온 2명이 가끔 이곳에 들르긴 한데, 그들도 전혀 일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돌아보기만 하고 일종의 감시만 했다는군요. 시아파 종교 지도자이면서 지역 유지로서 이 지역에 일종의 세력 행사를 펴하고 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사담 후세인은 순니파에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아파 이맘들은 그를 싫어했지요. 그런 반감을 미국이 이용해서, 후세인 이후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마리벨라와 저희를 안내하고 있는 썰람의 의견입니다.(썰람은 바그다드 대학에서 89-93년도 무역학을 전공하고 요르단에서 타이어를 수입해서 팔아온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 하고,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고, 경제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오후6시까지, 주일 오전엔 교회를 다녀왔다가 오후 2시에서 6시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여긴 금요일이 휴일이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이곳의 직원들의 업무와 일하는 시간 파악, 여기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들(100명 가까이 되는)의 이름, 나이, 상황 파악(여기 남아 있는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П.П), 여기 의사 한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여쭙어 본 필요한 의약품 지원, 선생님 2명이 장애아동 중 이해할 수 있는 몇 명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 지원, 외국인 언론이 오면 그들과 인터뷰해서 이곳 상황 알리기 등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는 이곳에서 서류 작업과 함께 요리, 교육, 아이들 씻기기 등의 일을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물품 및 재정(4월 18일 현재)**

**1. 직원 봉급**

1인 당 17500dinar(7달러 정도: 1달러=2500ID로 계산)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이분들의 월급을 인상해갈 생각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제일 부족합니다.

**2. 약품(여기 의사분께서 적어 주셨습니다)**

- 1-Capsule
  - Ampielin
  - Kehlax
  - Arthromycin
  - Poustan
- 2- Tablet
  - Prasetol-lebrax
  - Aspirin
  - Tkretol
  - Deyaken

**3- Sirup**



- Kehlex 250ml- B. Blex- Ferosam
- Tusilet
- Samilin
- 4 omnitment

- for Skin
- for eyes

3. 기타

Shampoo for children

Shach

Bandage

20 Wheel Chair for children

cater

수많은 단체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이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보다, 이곳이 나중에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시아파 이맘이든, 전 정부 직원이든, 지금은 정부가 없는 상태라 여러 정치 세력과 단체들의 이권다툼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곳에 머물면서 사람들 상태를 보고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여름에 이곳에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4월 20일  
한국반전평화팀 유은하

■ 바그다드 리포트 2 (4월 20일, 임영신)

Solidarity for Peace Making and Sharing / Baghdad /  
18. April. 2003

1. 활동보고

- 4월 15일(월) 1진 바그다드 도착 : 이정용, 황상철, 임영신 : 웨라톤, 알파나 숙소 확정
- 4월 16일(화) 1차 의약품 전달을 위한 리서치 - 5개 병원방문, 국제 적십자, 국제단체 방문(프랑스 의사와 함께)
- 4월 17일(수) 사담정형외과 의약품 전달 / 수하드, 카심, 사바 등 현지인 미팅 및 고용
- 4월 18일(목) 민가 및 민심 조사 / NCCI 멤버로 국제단체 협의미팅 참여
- 4월 19일(금) 고아원, 장애인 시설, 개인병원 방문 조사
  - 2차 한국팀 도착 - 한상진, 성혜란, 오수현, 이해룡 (의약품과 함께)
  - 함께 조사했던 닥터 차크가 속해있는 프랑스 AID MEDICAL INTERNATIONAL팀과 연대해 일하기로 결정
- 4월 20일(토) 2차 병원 방문조사, 사담시티(변화된 상황체크), 현지 발런티어 팀 미팅

2. 2차 리서치 현황

"천원이면 굶주리는 이라크 어린이 3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의 캠페인을 하지 말아주세요. 전쟁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는 이들이 그 오랜 세월동안 가져 온 그들의 자존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귀 기울이고, 이 전쟁을 극복해 갈 우리의 이웃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증언하고 이 전쟁을 극복해 가는 것을 돕겠다고 이곳에 왔지만 이들은 이미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 이 전쟁을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이 가파른 시기를 대처해야 할지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비밀 경찰 때문에 누군가의 집을 간다는 일이 어려웠던 이들, 전쟁의 막바지에 온 우리들은 앞다투어 그들의 집에 청합니다. 그들의 집이 폭격으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식량은 있는지 걱정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우리에게 그들은 오히려 성찬을 대접합니다. 물론 고기 없이 야채와 밀가루로 만든 식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성찬을 만드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 가난한 이들은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우리에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150킬로그램의 밀가루와 감자를 준비해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와 안전... 미래에 대한 희망일 뿐이라고...

이곳에 머문 이틀동안 저희들은 전쟁 전부터 일하고 있는 4개의 병원 그리고 문을 닫은 2개의 병원, 1개의 개인 병원을 방문했고 이라크의 의료진들, 민병대들, 자원봉사자들, 간호원들, 디렉터들을 만났습니다. 또 국제적십자를 방문해 현지 디렉터와 조사 전문의사를 만났고, 이곳에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며 정보를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일할 연대의 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한 사무실에 20개 단체가 모여 함께 원칙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연대 체를 만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자가 준비한 일들, 조사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하며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역할을 분담할지, 어떻게 현지 인력을 최대한 사용하고 주체적으로 일하도록 도울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서치 과정에서 국제단체의 의사, 활동가들과 함께 동행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도착한 4명의 한국 팀원과 같이 다시 한 번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이미 방문했던 병원과 시설들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위협하다는 사담 시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조사 결과 의료진, 국제활동가, 현지 이라크인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이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병원의 경우 특히

- 1. 치안
- 2. 전기
- 3. 교통
- 4. 통신
- 5. 그리고 의약품들

입니다. 의사들이 많지만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을 오지 못하고 있고, 병원의 침대가 텅 비어 있지만 치안 문제로 환자들이 집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한 가정의 경우 다리에 2센티미터의 유탄파편이 박여 있던 수술 없이 집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하고 다시 그의 집을 한 번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치안, 위생 등의 문제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긴급구호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할 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병원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역으로 지금이 가장 NGO의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군들은 탱크를 가지고 일부 호텔, 그리고 석유자원을 지킬 뿐 시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 유니세프 등도 안전 문제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정 반대로 현지의 이라크 인들은 스스로 발런티어 그룹을 만들어 병원을 지키고, 의료진들은 어떤 월급도 없이 무료로 다친 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 역시 월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오히려 친척들이 아이들을 찾아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더욱이 주변의 이웃들이 돈, 석유, 식량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와 주고 있고, 인근의 병원들은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해 그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CNN의 뉴스 속의 이라크 사람들은 그저 약탈자, 혹은 미군을 환영하는 힘없는 이들일 뿐이지만 바그다드에서 만나는 이라크 사람들은 넉넉히 이 전쟁을 이겨내고 있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힘으로 이 혼란을 헤쳐나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장 해서 약 한달 정도 병원을 돕고, 고아원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그러나 지금은 어떤 지원이 없는 시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치안

그러나 이곳이 무정부 상태로 방치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원의 경우 주민들이 병원 수비대를 만들어 총을 들고 약탈로부터 병원을 지키며 운영을 하고 있고, 군대가 버리고 간 앰볼런스 등을 얻어 자원봉사자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체를 수거하는 사람들조차 현지인들이 조직한 자원봉사자입니다. 방문했던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도, 식량 등의 문제는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한 두 시간 동안도 이웃의 주민들이 먹을 것, 돈 등을 들고 계속 방문을 했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들어와 있으면서 기자들만을 지키고, 도시의 약탈 등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 그들이 약탈의 풍경을 갖기 원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들도 이라크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고있습니다. 이라크 인들은 약탈자는 바그다드 사람들이 아니라 바그다드 외곽에서 전쟁 전부터 조직되어 이 기회를 틈타 도시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부 그룹의 조직적 행동일 뿐 바그다드, 이라크 모슬렘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다만 미국이 저 모습을 이라크의 모습이라고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2. 식량

이미 전쟁을 겪어보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식량을 받던 고아원에도 먹을 것이 쌓여 처리가 곤란할 만큼 식량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위협하다는 사담 시티 등에서 야채 장사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지역이 전혀 파괴되지 않았기에 시장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자급자족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전기문제만 해결되면 식량난은 없을 것입니다. 고아원의 경우도 충분한 식량을 쌓아두고 있어 더 이상의 음식지원은 필요 없다고, 석유나 직원들의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협하다는 사담 시티 등에서조차 일부 야채 장사들이 문을 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고 특히 이라크 대부분의 식량을 공급하는 북부지역의 폭격피해가 크지 않아 교통문제, 전기문제, 통신, 치안 등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면 식량난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경우 식수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의 경우 보다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구호단체의 경우 우물을 파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교통

교통의 경우 이미 이틀 전부터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어제부터는 1만 명의 교통경찰이 도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바그다드에는 10만대 가량의 차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시계, 향수 등 생활품이 아닌 상품들도 하나 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파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만 정비되면 이삼일 내에 전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기, 교통 등이 해결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약탈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매일 비치고 또 실제 하루에 몇 번씩 총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사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일상적인 삶을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 통신

통신의 경우 정보통신부 건물이 완전히 폭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요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외신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셰라톤과 팔레스타인 호텔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의 이라크 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위성전화기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마다 피난을 가 있는 자신들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서로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당분간 통신이 복구되기는 어려울 듯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 사무실에 가면 전화를 쓸 수 있다는 막연한 정보를 의지해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 명 씩 그곳을 찾고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 3. 국제단체들의 활동현황

■ NCCI 결성 - NGO(s) Coordination Committee in Iraq (on April 17th, 2003)

■ 참여단체

Premiere Urgence

Islamic Relief Agency

. Life For Relief & Development

Italian NGO Consortium (Bridge to, CCS, Intercoms, Terre des Hommes)

Medecins du Monde France

Medicines du Monde Spain

Medecins Monde Greece

Aid Medecins International

Medecins Sans Frontieres Frans

Medecins Sans Frontieres Belgium

Solidarity for Peace Making and Sharing(Korea)

■ 합의된 원칙

1. 각 단체는 최대한 현지의 인력, 자원, 기술들을 활용해 이라크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다.
2.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며(예를 들면, 월급, 임대료, 조사결과, 현지 인력 등) 협력한다.
3. 미군과 함께 들어온 구호 기관들은 위원회의 멤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팅을 가지는 등 협력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 활동계획

월요일 : 전체 미팅시 각 단체의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화요일 : 각 섹션별 세부 미팅 시작(교육, 의료, 보건 등)

-> 이 위원회의 건강 및 교육 등의 아동 관련 섹션에 참여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국제 연대 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5. 향후활동계획

4월 21일(일) 학교, 시설 등 어린이 관련 전반 현황조사 / 고아원, 장애우 시설 물품 전달

암만팀 - 최혁, 정성훈 의약품과 함께 밤 12시 바그다드로 출발

4월 22일(월) 현지 국제 NGO 미팅참여 -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바스라, 나시리아 등 남부지역 조사를 위한 리서치 트립

4월 23일(화) 나시리아 - 바그다드

국제 NGO HEALTH SECTION 미팅참여 -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4월 24일(수) 바그다드 - 3차 리포트 정송

이후 모술 등 북부지역 방문 조사 및 국제단체들과의 정보 교환 및 연대체 구성 후 다음주 수요일 종합적인 리포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는 의약품 및 의료진을 파송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내신 의

약품만으로도 충분하며 다음 주 초 이곳에서 현지 병원에 전달가능 합니다. 한국평화팀 2차 조사팀이 월요일 밤 12시 암만으로 돌아갈 예정이니 그 팀을 통해 중간 보고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6. 캠페인 관련 제안

① 의사소통

캠페인 팀, 취재팀, 보건의료 등 캠페인 단체 사이에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은 채 기사가 먼저 나가 많은 혼선이 있었음, 가능하다면 바그다드와 하루에 한 번 통화를 통해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곳으로 누구를 보낸다면, 약품을 보낸다면 하는 문제는 협의 후 진행을 바랍니다. 또 기사에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공지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현지와의 확인을 바랍니다. 위성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쉐라톤호텔에 있을 때입니다. 특히 캠페인 팀에서 김보근씨든 누구든 한 사람 연락 담당자를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암만과는 자주 통화하고 있습니다.

② 5월 3일 콘서트 관련

- 이정용기자님의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 3-5분 정도 상영하는 아이템을 기획 시 고려바람
- 만약 원한다면 이 주 내에 이정용 기자님과 협의를 하고 컨셉에 맞는 작업을 진행해 다음주 말 완성해야 함

③ 증언

- 콘서트 시 이라크 사람 1인, 아이 1명이 한국에 가 이라크에 관한 영상, 슬라이드와 함께 육성으로 증언하는 프로그램을 고려바람
- 아이의 경우 폭파로 상처 입어 이곳에서 진료가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같이 가서 진료를 받고 함께 간 이라크 사람이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③ 통신관련 - 통신회사의 지원을 받는다면 위성전화와 전화비용을 스폰 받아 이곳에 가족과 연락을 못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이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단기적이긴 하지만 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일본인 그룹이 7대의 위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 전화요금은 1분에 10달러 정도입니다. 통화시간, 하루에 가능한 인원을 정하고 통화서비스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듯 합니다. 암만에서 편지를 가져와서 이곳에서 전해주는 것도 일본그룹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씨씨 등이 위성전화를 쓰게 해 주며 그 사람들 인터뷰를 만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호텔 앞 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두 번 닥터 차크가 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우는 그들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통신회사에 캠페인 팀에서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특히 엘지나 삼성의 경우 바그다드 여기저기에 간판을 붙이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니 그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바그다드 팀에 필요한 물건들

#### 1. 기록문제 관련

- : 이정용 기자님 렌즈, 플래시 카메라(사진부와 확인바람)
- : 노트북에 갈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 못 쓰고 있음)



- : 프린터 (바그다드 사무실용)
  - 2. 한겨레 팀 체류관련 : 전기밥통(작은 것), 전기포트 - 암만 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태, 특히 밥통
  - 3. 식사 문제 : 김치 등 밑반찬 - 밥을 해 먹을 예정
  - 4. 통신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대용 위성전화(가능하다면 전화요금을 협찬 받을 수 있는 곳 모색바람.)
- : 두바이 공항에서 1천불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함, 가능하다면 2대  
(한 대 값은 조성수 기자가 지불할 것임)

■ 바그다드 리포트 3 (4월 24일, 임영신)

# Solidarity For Peace Making and Sharing

## 1. 활동보고

지난 4월 20일(일)부터 4월22일(화)요일까지 우리는 리서치의 방향을 전환해 사담시타, 뉴바그다드 등의 빈민지역, 위험지역, 그리고 보다 작은 병원들, 정형외과, 화상전문 병원같은 전쟁과 직접 관계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진료가 아니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병원들을 재 방문하며 보다 면밀한 리서치를 시작했다. 특히 암만에서 도착한 네 사람과 함께 팀을 나누어 병원 및 진료서를 방문하고, 국제단체들의 계획들을 체크하고 우리의 리서치 내용, 사업계획 등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등, 우리가 가진 자원이 중복지원 되거나 어떤 사후 관리 없이 그냥 전달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배분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했다.

특히 오늘 참여한 NCCI(이라크 NGO 협력위원회) Health 파트에서 국경없는 의사회 및 십 여년간 이라크를 지원해 온 아랍계 구호 단체들을 통해 정보를 교환 하는 등 우리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현지의 단체들과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가 방문한 세 진료소와 같은 형태의 지역밀착형, 주민 건설형 작은 진료소를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기로 몇몇 단체가 관심을 보여 소위원회 형식의 미팅을 꾸려 정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 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지난 일주일 간 평균 2차례 정도 방문했던 10개의 병원, 3개의 진료소 외에 프랑스 의료전문단체가 지난 이주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내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각자가 그 동안 조사하고 평가한 이라크 현지의 의료수요, 문제점, 필요한 의약품 목록, 각 단체가 전달하거나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 및 목적 등을 내일 오후 6시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그 이후 각자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진을 파견해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암만에서 의약품과 의료진이 오고 있고, 이를 통해 내일 회의 이후 목요일부터 1차 진료 및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목요일 바그다드 이외 지역의 수요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할 계획이며 다른 단체들과 지역을 나누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에서 휴먼셴드로 활동했던 이란계 미국인 리나가 의약품은 물론 우리팀과 결합해 진료소 지원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고 프랑스 그룹으로부터도 긴급한 화상약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바그다드와 암만 현지에 남아있는 전쟁이후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개인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팀으로 활동해 갈 계획이다.

## 2.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에 관한 의견

현재 우리는 위에 말한 바 처럼 22일 오후에 있을 Health Part 2차 미팅을 통해 이곳에 있는 30여개의 의료전문 국제기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복될 지도 모를 각 병원의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리스트를 공유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각자 지원할 분야를 분담할 것이다.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십여개의 의약품 리스트는 이 보고서에 별첨하지 않는다.

의약품 리스트 및 바그다드 전체의 의료현황, 의료수요 등에 대해서는 내일 미팅 후 종합적인 보고를 할 것이다.



3. 2차 리서치 결과

마을안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진료소

이 진료소들은 뉴 바그다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시아파 모스크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2주일 전,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절실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모스크만이 아니라 의사, 약사 등등 일하는 사람들 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지역 주민들도 자신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고 큰 도움을 주며 협력하고 있다. 전쟁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든 지구체, 말 그대로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의의가 있다. 모스크 앞에는 (홍진) 물건들을 모스크에 돌려달라는 현판이 세워져 있으며, 주민들은 전쟁 직후 부유한 지역에서 약탈된 의약품과 물품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한다. 바그다드의 처참한 파괴와 약탈과 방화를 강조하는 서구 미디어에 상반되는 흥미로운 진술이다.

이 진료소들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길면 6개월 이후 질서가 회복되고 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의사와 약품의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외과 의사가 필요한데 세 진료소 모두 없다. 그리고 전쟁 직후 급박한 고비가 지난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뇨병이나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을 호소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지역은 전쟁 전에도 의료 시설이나 약품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여자 환자들의 경우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큰 병원에 가거나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기를 꺼려 병을 묵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장기적인 지원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여성 의사가 특별히 필요하다.

1) 알 압바르 모스크 진료소 : 의사(아직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 무세르 무센 아포드(Musser Muhssen Appod) 27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점심 시간 1-4, 3시간) 300-400명의 환자를 혼자 진료하고 있다. 위급한 환자나 중증 환자는 알 킨디 등 근처의 종합병원에 보낸다. 무세르 의사는 일반적인 소아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한 약품, 소아와 노약자의 상처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약품과 기초 의약품 전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료소에 부속된 약국의 약사 피리즈 아메드(Firas Ahmed)도 비타민, 항생제, 해열제 같은 기본적 영양제와 약품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랜 경제 봉쇄와 전쟁으로 어린이들은 발육 상태가 나쁘고 노약자는 허약하기 때문이다.

2) 할 바디아 학교 진료소 : 근처에 있는 종합 병원 알 아민의 레지던트 싸라 알라싸르(Salah Alassar) 와 다른 자원 봉사자 의사가 하루에 100-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 지역에 전문의 2명이 사는데 그중 한 명인 여성 산부인과 의사에 일주일에 5번, 하루에 2시간씩 와서 도와준다. (필요한 약품 목록 별첨 3)

3) 모하마드 알바디 모스크 : 세 진료소 중 가장 늦게 5일 전에 문을 열었으며, 1명의 자원봉사자 의사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료한다. 심한 환자는 종합병원 알 아미리아 등으로 보내고 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는 것 등은 공통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 지역에서 봉사할 경우, '안전 보호와 숙박 등은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 수단은 차를 대절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스스로 구해야 할 듯. 일단 시작한다면 한 두 번 왔다가는 것으로 끊기지 않도록 3-6 개월은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병원

공립 종합병원들(15 개로 추정) 은 전쟁 중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았거나, 계속 문을 열었다 해도 일반적인 의약품은 2개월 정도 비축량이 있다. 의사의 숫자도 결코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의사 일인당 환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다면 위의 진료소의 예처럼 소외된 지역의 문제이지 대도시의 문제가 아니

며, 종합병원은 더군다나 아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봉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2개월 이후에 약품 비축량이 소모된다고 해도 여러 구호단체들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필요한 것은 마취제, 골절 복구용 철침, 항암제 같은 특별한 약품들이며 초음파 진단기 같은 의료장비, 앰블런스 등이며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병원마다 다르다.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품보다는 다른 것들이다. 이를테면 일회용 시트, 가운, 장갑, 마스크가 매우 부족하다. 전쟁 중에 시트나 가운을 빨거나 소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소 탱크, 수술용 의료 세트, 살충소독제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도 필요하다. 지금 이라크 는 아직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문을 연 상점이 있다해도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궁핍한 상태이다. 이런 궁핍은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평상시라면 좀더 오래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도 되도록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는 많지 않다고 해도, 중증 입원환자는 아직도 있다. 이들을 포함해서 두달 채 봉급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도 형편없는 음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고기, 치즈(냉장이 안된다는 게 문제이므로 통조림으로), 계란 등 양질의 음식을 보급한다면 크게 환영받을 듯.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 전 정부의 지도 아래 있던 바그다드의 공립 병원들이 정부가 무너지자 행정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약품을 전달해도 받아서 차리할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몇 명의 자원봉사자 의사와 환자가 있는지 모르기도 한다. 그리고 넓게 보아서는 병원 간의 연계가 끊어졌다는 문제로 드러난다. 지금 각 병원은 고립된 채 자기들 스스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태. 행정과 연계가 회복되려면 정부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봉급이 없다는 것도 점점 큰 압박이 될 것 같다.

1) 알 하비비 병원 :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 병원(Maternity & Pediatrics) 300 침상. 전쟁 중에도 계속 문을 열고 있었으므로 환자가 크게 몰렸다고 한다. 요즘 방문환자 하루에 300-500명, 입원환자 40-70 명 정도 하루에 40-50 건 수술(전쟁 이전 20-25건. 많이 늘었다.) 의료진의 구성은 전문의 25 명(마취의 10명을 포함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 레지던트 35 명, 간호사 8명. 행정직 20 명, 잡역직 80 명. 전쟁 중에 약탈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총 들고 지켰다니 인상적이다. 약탈을 당하지 않은 병원들이 대개 종교단체의 호위를 받았다고 하나, 그 전에 의사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Dr. Najee Jasim Mohamed, Dr. Mohamoud Jassim Mohamed Ali 등은 거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들도 의사나 일반적인 의약품 지원보다는 일회용 시트, 가운, 마스크, 장갑 등이 더 필요하다고. 그리고 급한 전문 의약품은 Atracurum(muscle), Prostagline, Pavlon, Pentothel. (모든 의약품 이름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곳 의사들은 필기체로 적어주고 한글 문서작성자는 의사가 아니라 해독하기 힘들.)

2) 알 카마라 대학 병원 : 며칠 전에 우리 팀이 이미 방문한 적이 있으나 매니저로부터 약품이 필요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어제밤 이 병원에서 화상환자가 약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가본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반적인 약품은 부족하지 않고 특별한 약품은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이미 화상환자들은 그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지 매니저를 만나보기보다 현장 의사나 환자의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병원은 전쟁 전 화상 치료 전문 병원으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위생 상태가 나빠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병원의 화상 환자에 대해서 따로 긴급 지원 사항으로 보고한다.

3) 알 까디시아 종합병원 : 알 사달 시티(사우라 시티- 사담 시티-알 사달 시티로 이름 바뀜) 300 침상, 하루에 4-500명 방문 환자. 전쟁 전에는 의사가 5명 정도였으나 전쟁 이후 각 의료단체에서 보내고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지금 전문의 30-35, House Office(? 가정 방문해서 의료 상담해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듯) 40명. House Office 시스템을 가진 병원은 이 병원뿐이라고. 사담 시티는 범죄자의 소굴로 알려진 빈민촌이나 그렇지만은 않



고, 오히려 바그다드 시내보다 더 빨리 일상이 회복되며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친절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시아파 지역인 이곳에서 이 곳, 99퍼센트가 시아파 교도인 의료진 틈에서 일하는 여의사(이름)가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한다. 자기도 여기로 파견받았을 때 겁을 먹었으나 일해보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일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은 전쟁 첫 날 약탈당할 뻔 했으나 시아파 종교 집단에서 강력한 경비로 퇴치. 전쟁 중에도 계속 일했다. 전신마취제는 긴급히 필요하나 일반 의약품은 적십자 등에서 지원받아 충분하다고 한다.

4) 추왈라 종합병원 : 역시 사담 시티에 있으며 매우 능력있는 원장 모팍 코레아(Mowfark Korea)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전쟁 중에도 24 시간 가동, 지금도 알 킨디 같은 큰 병원이 자기들은 6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환자들을 이리로 보낸다. 하루에 20 건 이상의 수술, 의사는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한다. 이 병원도 시아파의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으나, 그 전에 시니어 닥터 22 명이 강력한 의지로 지켰다. 주니어 닥터(레지던트?)는 그때 모조리 도망쳤다고. 이제껏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골절 복구용 철심 2개 뿐. 당장 40 개는 필요하다. 폭탄 맞은 환자가 많기 때문. 이 병원 원장은 2달분 의약품은 비축되어 있으나 정부가 복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며 어떤 의약품이라도 환영한다고. (그리고 매우 행정력이 있으므로 여러 단체로부터 많은 의약품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아무크 병원 :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다. 환자 반 의사 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사들이 있으나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중 일부는 지원받아봤자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보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날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며칠 안에 전기가 돌아와 가능할지도 모른다.

#### 4. 긴급 지원 사항

전쟁이 끝났어도 미군이 버리고 간 폭발물 때문에 화상 환자가 많다. 알 카나라 대학 병원에는 미군이 투여한 집속탄에서 나온 불발탄(탁구공처럼 생겼다고 한다. 흙에 묻혀 있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터진다.)의 폭발로 인한 부상자 2명(알 하심 타운), 그리고 미군이 버리고 간 폭발물(TNT)을 갖고 놀다 터져 다친 어린이들(바쿠바 시) 4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 중 3명은 치명적인 상태이며, 2명의 여성 환자가 더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한다. 부상자 후세인 파들(12세), 알라 파들(10세) 형제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특히 심한 후세이니은 이라크 바깥으로 데려가 치료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후세인은 고통을 못 이겨 계속 흐느꼈지만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안정 상태에 들어섰다고 한다. 옆 방의 환자 알라 후세인은 어머니가 몸에 약을 바르자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목숨이 위험하다

이들은 4일 전에 사고를 당해 이하루 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치료약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들은 큰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여러 언론이 알고 서둘러서 약을 구해줘서 다행이지만, TNT 폭발 사고로 다친 여러 명(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은 바쿠 시의 바쿠 종합병원에서 약도 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알 카마라 병원은 화상 치료로 명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병원의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빠서 화상 부위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40일 넘게 집에 가보지를 못했다는 레지던트 비랄 살몬 란드(Bilal Salmon Rand)는 미군의 폭발물 때문에 요즘 하루 평균 6-8 명씩 이런 환자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병원엔 화상 전문의 2명이 더 있으나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 비랄 의사는 무엇보다 일회용 시트, 가운, 장갑, 마스크와 Disinfected Chemical이 긴급하다고 말한다.

#### 5. 향후 활동계획

수요일 오후 도착할 의료진 3명, 우리 팀원 4명이 함께 목요일부터 진료소 지원활동을 시작  
목요일 북부지역에 대한 리서치 시작 - 키르쿠크, 모술, 쿠르디스탄 등



##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격려와 염려 기도와 관심으로 저는 여기 무사하게 잘 있습니다.

지금껏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한국이 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꼭 한달을 보냈습니다. 전쟁전과 전쟁 중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지금 이라크에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왔지만, 전쟁은 일어났고, 그것으로 평화팀으로서의 활동은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라크의 국민들, 이 전쟁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도움으로써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담 후세인에 의해 운영되던 정부가 무너지고, 이어 모든 관청건물로 시작해서 은행, 박물관, 병원 차들 까지 약탈당하고 있으며 서로 빼앗다가 싸움이 붙어 총을 겨누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의사들도 거의 떠난 상태이고, 국제 적십자를 비롯한 구호단체들도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아직 안전문제(자살폭탄이나 민란 등)가 남아있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N등록 구호단체로 이곳에서 오래 활동해 온 "Life for Relief & Development" 바그다드 지부 대표인 Yarub씨는 "폭격에 의한 피해보다 약탈에 의한 피해가 5배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그다드는 통신도 불가능하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을 지금 바그다드를 통제하고 있는 미군이 묵과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장면이 IPT 회원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천 명 가까운 기자들이 전세계에서 몰려왔지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제대로 물러나는지, 미국이 제대로 승리하는지?)

무정부 상태의 공백기에 이 곳을 채워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력과 총상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한 달 분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도 이들을 돌아보는 단체가 없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프랑스인 의사 Jacques는 석 달 전 이곳에 와서 하루에 쉬지않고 22명을 수술했습니다. 구호단체들에 의사가 있지만, 그들은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구호단체와 의료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손실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고통도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특히 당장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외과전문의)와 의약품, 그리고 발전시설 및 산소공급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지금 보내주시시오."

저는 이곳에서 기존의 IPT 몇 명과, 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구호단체 및 국경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현지 병원과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의료진들이 오면 당장 투입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병원과 숙소(지금은 모든 호텔을 기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나 사무실, 차량(앰블런스가 없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12년간의 경제제재 조치로 병원에 약이 없고, 걸프전 때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아이들이 한해 50 만 명씩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의약품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가장 긴급한 외상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장비, 사람을 보내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제발 도와주시시오.

### 추신

1. 이곳에서의 안전문제는 이미 들어와 있는 미군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통역해 줄 분들도 마련해 놓았으니,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좀 와 주십시오. 긴급하게 필요한 약품 목록을 첨부합니다.
2. 가벼운 것들은 한국에서 기증받아서 오시고, 큰 물건들은 암만에서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식량도 완제품이 아니라 밀가루 등을 암만에서 구입하는게 낫습니다. 재정모금이 필요합니다.
3. 오는 모든 절차를 한국에서는 '반전평화팀지원연대'가, 암만에서는 암만본부가 도울 것입니다.
4. 위성전화가 필요합니다.

병원이름 : AL Sadcon Hospital

주인 : Hamoude 가정 & Dr. Shawgi Gazala, Dr. Hala Allos 부부 공동운영

위치 : AL MONZER(알 파나르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립니다.)

### 필요장비

SURGICAL LIGHTS

OXYGEN CYLINDERS(작은 것) & REGULATER

### 약품

Sutur material / Suigcgalkets / IV Fueid / Behadeal / Dressiugs / Steirle e sfcirle glates / Morphins

Awprcell / Cepholet / Anesthetics / Pavulon / Fluothane / Prostigmine /Peghidine / E Tramal

Thiopentane

### 기타

SERGICAL TOWEL



■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 계획서 - 이라크 민중지원 사업 제안 (4월 30일, 최혁)

# 이라크민중사업제안

4월 29일  
최혁(이라크반전평화팀)

최근 바그다드에 다녀온 뒤에 정리한 상황과 반전평화팀의 진로 등에 관한 글을 보냅니다. 상황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길게 쓰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글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의견이 모아져서 새로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획서로 재작성 되어야겠지요. 이 메일을 받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직접 논의의 당사자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라크 지원 사업에 대한 반전평화팀의 진로 및 향후 사업 계획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 제안

### ■ 최근 바그다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바그다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황은 전반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계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바그다드의 주변 지역도 조그만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 등 종전 직후의 혼란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평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요. 물론 아직 도시가 정상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상점이나 식당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또 문을 연 곳들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요.

또한 아직도 곳곳에서 총성이나 폭발음이 간간히 들리는 등 개인의 처지나 심정에 따라서는 위협하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시간부터는 미군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꺼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민중을 위한 조사나 지원 활동을 벌이는데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내의 교통 상황도 아직 전반적으로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통을 통제할 경찰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동네 청소년들이 교통 정리를 하기도 하고, 시내 중심가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들이 서로 엉키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등 매우 복잡한 모습이지요.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의 언론이나 개인들의 고의적 혹은 미필적인 바그다드 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약탈이나 간헐적인 전투와 같이 신변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으며, 하루가 다르게 바그다드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라크 민중 지원과 관련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령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팀과 보건의료연합에서 파견한 의료지원팀이 함께 의약품 전달한 병원 3곳은 모두 대형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국제 기구 등의 의약품 지원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 우리 팀이 상황을 접했을 때처럼 매우 다급한 모습을 찾기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약품 전달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혹은 의약품이 풍족하다는 걸 뜻하는게 절대 아니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지만, 현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한데, 무엇보다도 큰 병원들임에도 실제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무척 열악한 교통 상황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전쟁 전에는 무료 진료하던 곳들이 전쟁 후에는 모두 돈을 받고 치료하기 때문에 빈곤한 이라크 사람들은 긴급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게다가, 정말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된 의약품들을 착복해서 팔아 넘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시내 주변에서 벗어난 지역의 의료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주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인데, 이곳은 전쟁 전부터도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인데 전쟁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거지요.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폭격 등에 의한 직접적인 부상 환자들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 전반적인 보건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생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지역의 경우는 상하수도가 썩이면서 더러워진 물로 인한 배탈, 설사 환자들이 하루에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우리 나라 보건소 같은 것이 하나나 둘밖에-그것도 전문의가 아니라 군의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마도 더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하겠지만, 식량이나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 등 일부 지역이나 대형 병원 그리고 대형 상점만 보면서 "이라크 의료, 식량 상황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며, 바그다드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빈민 지역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그다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문제를 접근하는 처지에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지원을,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어떤 사람들은 물이나 보건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말하곤 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관심 영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바그다드, 아니 이라크 전체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빈민지역의 경우는 뭐하나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선의를 가지고 바그다드를 찾는 여러 국내외의 구호 단체들 사이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어렵게도 상호 정보의 교환과 역할 분담 같은 협조보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현지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이름 알리기를 위한, 더 심하게 말하면 생색내기 구호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름 있는 국제 단체들은 안전을 이유로 바그다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겨우 들어왔다고 해도 미군 보호가 이루어지는 호텔에서 매일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큰 병원 등에 물건 전달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할 일을 했다고 생색내고 있지요. 하지만 미군이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빈민지역에는 조사를 하거나 의약품이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겠지요. 이른바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뒤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나서지요.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당장 고통 받고 죽어가는 이라크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변 안전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나 구호 물품의 안전이지요. 정말 허탈한 질문이지만 구호 단체들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호 단체들을 위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 ■ 현지 한국 반전평화팀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팀은 이미 전쟁 전부터 바그다드에서 반전평화 활동을 전개했고, 종전 후 대략 2주전부터 한겨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에서 파견된 의료지원팀과 함께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을, 그리고 현지 조



사 및 여러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일과 조만간 실행할 일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쟁 전부터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빈민 지역에서 진료 활동을 시작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팀은 주로 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에서 오신 의료지원팀이 진료 활동을 하고 의약품을 전달할 곳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인구가 대략 150만에 이르는 뉴바그다드라는 지역의 몇 군데 보건센터(병원이 아닙니다.)가 현재 주 대상이며, 또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을 힘에 허락하는 대로 찾고 있습니다. 의료지원팀의 활동이 5월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의료진의 파견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필요한 의약품의 전달을 지속하고, 무엇보다도 현지인 의사들에 의한, 그리고 현지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안정된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요.

다음으로는 쓰레기 청소 사업입니다. 긴급한 의료지원 사업과 함께 매우 시급한 문제는 빈민지역의 정말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도 지금은 시내 중심가의 쓰레기들은 장사를 하기 위한 가게 주인들에 의해 치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민지역은 주택 골목마다 공터마다 넘치는 쓰레기로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음식물 등 필요한 것을 줌을 모습을 자주 본다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대로 하수도가 파괴되어서 먹는 물이 오염된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현지인에 따르면 청소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못받으니 일을 하지 않고 트럭 같은 장비도 다 녹슬고 있지요. 행정기관도 마비가 되어서 누가 나서서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있지요.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치우는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역시 필요한 장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긴급 의료지원 사업에 이어서 쓰레기 청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바그다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심지어 뉴바그다드 지역도 다 포괄할 수 없는 역량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지인들과 함께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시작하려고 하지요. 지역은 뉴바그다드에 포함된 의료 지원이 이뤄지는 빈민 지역입니다. 트럭과 장비를 구입하고 현지인들은 인력을 동원해서 함께 청소하는 거지요. 일단 우리처럼 작은 단체가 시작하면 많은 외국 단체들이나 현지인들도 동참할 것이라 믿고 작게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아를 비롯한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유은하 팀원은 장애아 보육 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장애아 및 교아원 등 아동 복지 상황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팀은 주된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의 하나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의료와 청소 등 긴급한 지원 활동 때문에 재정 등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문제 역시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주로 빈민지역의 아동과 장애아(아마도 바그다드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하나 내지는 둘밖에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폐교 상태라서 이라크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 더미 위에서 뛰놀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빈민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과 의료 지원, 그리고 해 맑은 웃음을 상실한 그들에게 다시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이상 언급한 몇 가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사업과 더불어 우리 팀에서는 또 다른 여러 사업들이 개인이나 팀 차원에서 구상 중이거나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전평화운동의 연장에서 전쟁범죄 보고서를 작성

하는 일을 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해서 진행하는 사업, 이라크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필요 물품을 보내려는 국내 여성단체의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폭격이나 폭탄으로 실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족 보내기 운동, 전쟁을 고발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이라크의 시민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평화학교 설립 등이 그것들이죠. 하지만 당장은 인력과 재정을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급 지원 활동으로 모으기로 했으며, 무리하지 않고 여력이 되는 대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대강 말씀 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바그다드와 국내에 있는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로 최종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 향후 반전평화팀의 진로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서 이뤄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진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반전평화팀은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반전평화 활동을 수행했던 한시적인 반전평화팀은 이제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반전평화운동을 그만 하지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이라크 전쟁 반대 사업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 지금 국내 지원연대로 많은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의지나 결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안이 사라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자기를 희생하는 고귀한 노력으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낸 반전평화팀은 이제 다음 단계의 더 큰 반전평화운동의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맡김하게 끝내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 마무리를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해소 선언과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팀을 새로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민을 해보길 바라구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주력 단체나 개인이 떠난 마당에 이쯤만 지속하는 것도 우습다고 보고, 5월 3일 콘서트를 기점으로 성명서 등을 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구나 팀을 구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반전평화팀을 해소하고 새로운 팀을 만들자는 게 물론 완전한 단절이나 완전한 새출발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실 저는 반전평화팀이라는 이름과 성과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요. 개인이건 단체건 자기 능력만큼 그 성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전평화팀의 다음 단계를 어떤 상시적인 평화운동 단체나 필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전평화팀의 해소와 동시에 이라크 민중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팀 내지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반전평화팀의 관점을 견지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이건 단체건) 다음 단계의 더 항시적이고 안정된 반전평화운동 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팀이지요. 물론 이전 팀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도 없고 또 새로운 개인이나 팀원들의 참여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감도 없지 않지만,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기존 반전평화팀의 마무리 사업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팀의 구성과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이라크 민중 지원(팀) 사업의 기본 관점과 원칙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반전평화의 관점에서 부당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라크 민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반전평화팀과 다르게 반전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겠지요. 다른 구호 단체들과 다른 첫 번째 지점이 바로 반전평화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몰려드는 구호 단체 대부분이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구호 활동은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침략 전쟁을 사후적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만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는 우리처럼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고 그 연장에서 이라크 민중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려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단체들과 비교하면 역량이 절대 부족하지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도된 상황이 일관된 반전평화의 관점에서 지원활동의 전범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작은 노력의 축적이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점 내지 원칙은 바로 "이라크민중의 삶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만적인 구호 단체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롯한 반전평화에 공감하는 구호 단체들도 무의식적으로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무관하게 이라크 민중 구호나 지원 사업을 역시 시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지원 사업에서 현지인들의 판단과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반전평화운동 과정에서도 많이 느낀 건데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러 왔다는 말만큼 저를 부끄럽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라크의 평화는 이미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라크의 재건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야 하는 이라크인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고 경험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요.

최근 경험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가령 외국에서 모아진 돈들은 이라크 민중을 위해서 모여진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 지는 당사자들인 이라크 민중이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현지인들의 판단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돈이 쓰여질 곳이 이미 정해져서 들어 옵니다. 정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는 지 어떤지 잘 모르고 일단 쓰는 거지요. 정말 그러면 안됩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쟁으로 상처 입고 고통 받는 이라크 민중이 이런 저런 구호 단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은 결코 동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로써, 그리고 이라크 민중과 똑 같은 세계 시민의 하나로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그들을 아무런 사심이나 조건 없이 돕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죠. 선의만 가지고 처리하기에 힘든 일이 많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들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팀이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거나 구상하는 사업들은 부족하나마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함께 합의한 일들이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원 활동과 관련한 모든 물품이나 인력도 최대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이라크 지원 사업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들여와야겠지만 가능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민중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서 국제기구나 정부,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앞세우는 각기나 단체와는 연대하거나 기금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서 제안한 반전평화의 관점, 그리고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이라크 구호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며, 또한 전쟁 전에 미국의 침략전쟁을 미화한 왜곡 보도를 일삼은 언론이 모은 기금도 거부해야 한다

는 겁니다. 물론 떡 줄 놓은 생각도 없겠지만요. 그런 돈들은 모두 특정한 의도와 조건이 있는 불결한 돈입니다. 물론 많은 돈과 물자가 있으면 좋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원칙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지요.

#### 4. 구체적인 이라크 민중 지원 활동 계획과 관련하여

이런 기본 관점과 원칙에 동의한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이라크 민중 지원팀 내지는 기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적은 단체가 모이더라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작더라도 제대로 하면 나중에 커질 테니까요. 간단히 기본 활동 계획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이라크 민중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럴 듯 하게 보이는 데 가서 물건 전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큰 길가의 모습이 이라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큰 길가에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의료지원팀과 함께 하고 있는 진료 사업처럼 가능한 깊숙이 이라크 사람들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한 이라크 혹은 바그다드 지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그다드에서도 가능한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와 결합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실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현재의 역량을 감안해서 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뉴바그다드가 좋다고 봅니다. 이미 의료 지원 사업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관계도 맺어졌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성 지원 사업도 우선 뉴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향후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는 단체나 개인이 늘면 지역도 하나 들썩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바그다드와 함께 바스라와 같은 이라크 남부 지역의 한 곳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에 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둘째, 지원 사업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라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년 혹은 평생을 사실 분도 계산 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가서 평생을 봉사할 곳이 있지요. 따라서 벌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작과 함께 끝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인 이라크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이 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일단 6개월을 제안하고 싶습니다.(재정 등의 이유로 무리하면 3개월도 좋고요. 하지만 최소 3개월은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올해 말까지요. 물론 이라크 민중 지원팀의 사업으로 말입니다. 만약 한시적인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의 과정에서 상시적인 평화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서 더 지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단계의 문제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팀이나 사업은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체로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의 규모를 정할 수 있죠. 제 경험에 따르면 실속 있게 현지에서 구호나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이렇게 일을 하더군요. 특정 지역, 대상, 사업, 시기를 정해서 재정과 인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전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서 대강 말씀 드렸듯이, 물론 이는 현지인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보면 1. 의료지원 사업 2. 청소 등 보건환경 개선 사업 3. 어린이 지원 사업, 기타 여성 지원 및 지역의 생활공동체 사업입니다. 의료 지원이나 보건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6개월 시간을 둔다면 시기별 계획이 더 상세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시간을 두고 주력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고 또 이라크를 비롯한 인류의 미래니까요. 할 일은 무척 많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현지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을 정하는 게 다른 사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지요.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한정 벌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추가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은 전쟁 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팀원 가운데 전담자를 두고 국내외 평화운동단체나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팀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재정 모금에 대해서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된 사업을 그나마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매우 긴급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물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우선 이라크 민중 지원팀을 새로 만들면서 기본 재정을 모았으면 합니다.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이 기금을 분담해서 내야겠지요. 재정은 대중 설정되는 사업에 따른 예산 규모를 편성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중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도 역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지요.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사업에 들어간 한겨레 캠페인과는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한겨레 캠페인을 매개로 우리 팀과 보건의료 지원팀이 공동으로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 의료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5월말 이후에는 캠페인 기금을 우리 팀이 계획하는 이라크 어린이 지원 사업 재정으로 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약간의 오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 잘 처리되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자체로 모은 기금이 아닌 외부의 기금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나 반전평화운동을 왜곡한 언론이 조성한 기금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앞세우는 기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를 믿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단체들과 최대한 대화를 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을 모은 곳의 기금 사용에 관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협의와 논의에 따른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판단과 결정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라크 민중과 협의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하는 거지요. 솔직히 재정은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라크 민중 지원 기구 구성 및 체계, 그리고 현지 필요 인력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부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물론 이전 반전평화팀 사업에 대한 여러 경험으로 팀이라는 형식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팀은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경험이 새로운 이라크 민중 지원 사업에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되는 팀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분명한 기준에 따른 팀원 규정이 있으면 합니다. 이라크 민중 지원팀은 이라크 민중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을 하는 기구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한 집행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지에 가서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정한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씩 말씀 드리면, 우선

일정한 기구의 체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같은 일정한 의사의 결정과 집행 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공신력도 높아집니다. 불가피하게 서울과 바그다드로 분산되어 존재해야지만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과 바그다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암만은 두면 좋지만 지금 역량 상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방도는 만들 예정입니다.

현지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는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활동 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 하지만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팀의 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 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태프의 경우는 모든 경비를 팀에서 지불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현지 생활비를 제외한 여행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는 현지에 넘쳐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략 활동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개 모집을 거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프의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보내야겠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강의 구상이 합의되고 의견이 교환된 이후에 말했으면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과 함께 이후 사업의 모양이 정해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여러 분들과 사전에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의 제안들은 현지에 남아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매일 보내겠습니다.



■ 현지 보고서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5월 5일, 오수연)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작성 : 오수연

바그다드는 서서히, 그러나 힘겹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담 후세인 패거리의 이라크 국민들을 계란 한 알조차 아쉬운 피폐와 참화 속에 남기고 도망쳤고, 미군 역시 삼주가 넘도록 마비된 사회 재건 시설을 복구하기는커녕 탱크로 시내를 종횡하고 있을 뿐입니다. 탱크가 방향을 틀 때마다 무쇠 바퀴에 보도 블럭들이 와자작 깨져나갑니다. 공습으로 인한 파괴에 비교할 수야 없겠습디만, 그들이 오래 머물 수록 역사 깊은 이 도시는 더 굶히고 금이 갈 것입니다. 멈춰라, 물러서라, 네가 얼마나 급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이 미군들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외치는 유일한 세 마디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말입니다. 이라크 민중의 해방을 위해 여기 왔다면, 미군은 전쟁 직후 이라크인들의 일상이 돌아가게끔 대책까지 갖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름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이 나라 백성들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전기가 귀해 밤에 호롱불을 밝히고, 가스가 없어 나무와 조잡한 석유 버너로 음식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너가 터져 화상을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장에는 야채와 과일이 등장하고 케밥을 굽는 연기도 다시 솟아나지만, 모든 것이 두 배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므로 피부 물가는 네 배, 다섯 배 이상이고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일거리를 찾을까 해서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매다가,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냐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담 후세인이 밀려난 거 분명히 잘 됐습니다. 전투에 지기 전에 그는 이미 부패한 권력의 냄새나는 강시에 지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사담 이후 미국을 등에 업은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건 이라크 민중의 해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금도 미군은 지나간 전쟁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자가 아니며, 사담을 중요했으나 미국을 원하지는 않았던 이라크 민중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평화와 나눔 연대)>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로 협조하여 가난한 지역의 민중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진료소'를 돕는 일입니다. 전쟁 이후의 구호라면 전쟁으로 결핍된 물품과 도움을 당장 지원해주는 긴급 구호와 사회 서비스 재건을 돕는 장기적 구호로 구분되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긴급 구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로 쏟아져들어오다시피하는 덩치 큰 여러 국제 구호 단체들이 대부분 장기 구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반해, 유독 우리만 임시적 미봉책인 진료소들을 지원하기로 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앞줄에서 이미 암시한 대로 우리 같은 작은 덩치의 구호 단체들이 장기 구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 판단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회 서비스 재건이라는 거창한 계획에 밀려 임시적이지만 절실한 요구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줄지은 트럭에 실려온 구호 약품들이 거의 모조리 큰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므로, 정작 전쟁 전부터 종합 병원에 갈 여력도 없었던 민중들은 여전히 약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병원에는 중병에 필요한 특별한 약품 말고 일반적인 의약품은 최소한 두 달 이상 비축량이 있다고 하는데, 동네 진료소에는 비타민조차 부족합니다.

우리가 임시 진료소에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들 진료소들이 임시적인 이유는 당장만 지나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지탱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진료소들은 전쟁으로 병원들이 문을 닫아 본의 아닌 휴가를 얻은 의사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므로, 병원이 다

시 시작되어 의사들이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 백 명씩 몰리는 환자들은 그 후에는 예전처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라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공식적으로는 모든 의료 혜택이 무료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은 거리도 멀고 병원비도 만만찮아 기층민들은 죽을 병 아니면 목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동네 진료소가 열렸다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류마티즘, 당뇨병, 천식 같은 고질병에다 발육 부진이나 천성적 기형으로 팔다리가 꼬인 심각한 질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 빈민촌이 전쟁 이전부터 의료 사각 지대였고, 전쟁마저 지나간 지금 상당 기간, 어쩌면 오래 더욱 상황은 나빠지리라고 봅니다. 즉, 긴급하게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능력과 정성만 있으면 장기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있고 약품을 지속적으로 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라크에 만든 진료소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수십 개의 병원이 하는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들 동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내과의 송광욱, 한의사 이용욱, 고수정 세 의사 선생님은 '뉴바그다드' 알 마시단 지역에 있는 '알 몬타다 보건소'에서 진료하셨습니다. 의사가 앓을 자리마저 없을 정도로 진료실은 북적거렸으며, 복도를 가득 메운 대기 환자들은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문을 열어 찢히고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어렵잡아 이틀동안 두 분 한의사는 250명의 환자를, 송선생님은 100-150명의 환자를 보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의사 아닌 저희 평화운동가들이 알 수야 없습디만 (이에 대한 보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가득 어린 기대감만은 누구에게도 역력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신종 의료 기술, 신비로운 동방치료법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느낀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진절과 헌신적인 태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하염없이 통증을 호소하고 또 그 두 배는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얼굴과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으나 정부건 미국이건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진 것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 너머에서 한국인 의사들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재앙이며, 이들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우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불행을 나눌 책임을 느낍니다. 어딜 가나 환자들이 줄줄 쫓아다녔고, 이틀 동안 앓을 새도 없이 진료하고, 진료가 끝난 다음날 약품을 사러 바로 요르단으로 나가셔야 했던 세 분 의사 선생님들은 분명 몸살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환영받으셨으니 그 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저희들 또한 고통과 기쁨을 주고 받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뉴바그다드'는 빈민 지역 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기로 한 곳입니다. 빈민 지역이야 많겠지만 수십 년 탄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폐쇄적이라 외국인이 한 번 왔다가는 식의 방문은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들 주민들과 어울리려면 우선 지역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 공동체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했던 '알 몬타나 보건소'도 지역 공동체에 자문을 구해 선택하고, 여자 환자를 남자 의사가 진료해도 되느냐 같은 사소한 것까지 모든 절차를 협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과 우리는 시혜를 베풀고 받는 수혜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공조 관계입니다. 중요한 언급을 한 가지 해야겠군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지역 공동체'란 구체적으로 '시아파 종교 지도자가 이끄는 지역 커미티'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와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습디만, 종교가 생활이고 문화인 이 지역에서 칼로 자르듯 종교를 분리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속 편하기야 몇몇 단체들이 하듯이 큰 병원에 약품을 주고 가버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종교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문화와 사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종교 분쟁을 이용해서 폭압 정치를 해왔던 터라 정치 또한 종교에 얽혀들 우려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을 것입니다.

권력과 통치가 공백인 지금, 모든 책임자와 공무원이 떠나버린 시아파 지역에서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행정



을 대신하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압제가 아닌 자치를, 배급이 아닌 분배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하나다. 미국은 물러가라, 이라크는 이라크인들의 힘으로 재건해야 한다. 외국 언론들은 내전이 벌어질 거라는 등 불길한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국은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이라크인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한 보고(5월 15일, 유은하)

# Al Nur 시각장애인학교 복구사역에 대한 보고

한국반전평화팀 유은하  
2003년 5월 15일

이름: Al Nur school For the blind  
위치: 바그다드 내 Al Salam city Area 408 Streat 20 building 7

**4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첫 방문(유은하, Salam)**

- 학교 문은 닫혀 있었고,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 중과 후,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지금은 매니저와 몇 명의 직원이 아침에 모여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갖는 정도라고 설명하다. 다음 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약속하다.

**4월 30일(수) 오전 9시 :**

위의 두 사람이 다시 학교를 방문해서 매니저와 몇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상황을 살펴다. 전쟁 중 약탈로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전쟁 전 직원과 학생을 포함 160명이 있었고, 이 중 88명은 직원이다(교사 포함). 지금은 아침 8-9시 정도에 매니저와 직원들이 몇 명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전쟁 전 61명 정도가 이 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지만(남자 방 6개, 여자 방 3개) 지금은 학생들이 남아 있지 않다. 가족이 데려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단다.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일단 매니저에게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20명)을 얻고,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다.

그날 저녁 알 파나르 호텔로 가서, 학교상황에 대한 긴급한 보도 및 지원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Voice in the wilderness의 Ramzi, BBC 프리랜서 기자 니콜라스와 Islamic relief 대표에게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방문약속을 받다. 보도자료를 알 파나르 호텔, Dar Al Hanan에 부착하다.

**5월 1일(목) 아침 8시 30분:**

- 20명에 대해 개인 당 15000디나르(약 8\$)을 지불하다.(총 158\$)
- IPT가 남기고 간 식수(2LX36병)를 전달하다.
- 매니저인 바틀에게 캐나다 'Teachers of Peace and Justice'에서 보내온 문구세트와 편지를 전달하다.
- 전달 작성한 보도자료를 매니저에게 전달하고, 학교 문에 부착하다.
- 매니저 옆 방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다.

**5월 3일(토) 아침 10시**

- 일주일의 3일을 이 곳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하다.(토, 월, 수 오전 10시-오후 6시)
- 당일 학교로 복귀한 직원과 교사들 51명에게 약 8볼씩을 지급하다(현재까지 71명 복귀), Dar Al Hanan의 므나, 싸마라 등이 와서 계산 및 월급지불과정을 돕다.



- 한국반전평화팀으로부터 식수를 받아(2LX60병) 매니저에게 전달하다.

5월 5일(월) 아침 10시

- 당일 학교로 복귀한 7명에게 8볼씩을 지급하다(현재까지 78명 복귀)
- 아부 가립 감옥에서 근무하던 일꾼 1,200명이 직업을 잃고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다.
- 전기 시설과 창문, 차에 대한 전적 파악에 들어가다.(책임: 찰람과 아드난)

5월 7일(수) 아침 8시 30분

- 일꾼 3명이 와서 유리 복구를 시작하다. 건물이 3개이므로 본관부터 시작하다. 전체비용 약 850불로 예상하다.
- 당일 학교로 복귀한 3명에게 8볼씩을 지불하다(현재까지 81명 복귀)
- 차와 관련한 설명을 듣다. 전쟁 전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학교로 데려오는 3대가 있었으나 1대는 운전사가 갖고 가서 돌아오지 않고, 한 대는 여자 직원이 차를 자기 집에 두고, 매니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한 대만 학교에 있었는데, 그나마 고장나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 전날(5월 6일) Dar Al Hanan의 전 매니저인 나달이 찾아와서 그 차를 끌고가 버렸다고 한다. 오후에 찾아가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역시 Dar Al Hanan의 세이프의 아빠 엄마(역시 정부 직원이었음)가 찾아와서 그 전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서 차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 페리(?)의 사람이 가서 즉시 나달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려줬고, 나달은 차를 도로 갖다놓겠다고 약속하다.^ \_\_\_\_ ^

5월 10일(토) 아침 10시

- 유리창 복구 1차 비용으로 1000\$를 지급하다.
- 7명의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다. 아마도 가까운 데 사는 아이들인 듯, 차가 없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
- 이 학교를 졸업한 Al Abid Al Wahaab(시각장애인, Iraq Satellite Channel의 통역담당)이 방문해서 상황을 묻고 몇 가지 조언을 하다.
- 내일(5월 11일) 11시에 Ministry of Work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후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 거기에 바틀이 참석할 예정.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이 학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바틀에게 부탁하다.

■ 성명 -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식민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유은하)

#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식민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Iraq Peace Team Korea  
유은하

저는 2003년 3월 1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3월 20일 발발한 이라크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또한 Voices in the wilderness의 캠페인인 Iraq peace Team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전후에는 이라크의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돌아보며 시설 복구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미국에 의한 본격적인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들은 소식입니다. 어제부로 미군이 발표하길, 이라크의 바트 당 소속인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떠나라고 했다더군요. 사담 후세인과 같이 일했다는 죄이겠죠. 그런데, 그 당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천만이랍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나요? 2천5백만 이라크 인구 중 80% 정도가 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 전엔 바트 당밖에 없었으므로, 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 은행, 공공시설 등 거의 다 국영이었으므로, 소수의 자영업자와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제외하곤 거의 당 소속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과 약탈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이미' 잃어버렸고, 달려가 치는 계속 하락하여 전쟁 전의 1/5 수준으로 떨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 기능이 안 되는데(실물가치는 그 대로인데 달려가치만 떨어졌고, 정부는 직원들에게 달려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전쟁 전보다 5배 살기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바트당 소속의 모든 사람들을 직장에서 쫓아 내겠다고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 말입니까? 미국인? UN 소속의 전문 NGO들? 쿠웨이트, 요르단 등 미국에 협조적인 다른 아랍인들? 그들이 2000만 이라크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일한다구요? 혹시 양보해서 모든 기관의 운영자 자리들만 차지한다고 칩시다. 그 자리들이 이익을 챙기기에 제일일테니까요. 그러다고 해서 그들이 이라크 기관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번 양보해 봅시다. 전쟁 전에 사담 후세인과 미국 간의 협상설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 며칠 전 노동부 장관을 우연히 어느 고아원에서 마주치면서 협상설에 대한 심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일을 시작했는데, 미국인이 아니라 전쟁 전 이라크 정부 관료들이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란 것이었죠. 그럼 사담 후세인만 없어지고, 그 전 관료들은 그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하긴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 시설 운영자들에게 직원들 월급을 한번 줄 뿐이었습니다. 업무 및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니다. 그 돈은 물론 미국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바트 당 소속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라구요? 월급 한 번 주는 데 그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자



기 자리를 떠나리요?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관료들은 누구입니까? 미국인들입니까? 그들을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담 후세인 정부에 의해서 넘겨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전쟁 전에 이뤄졌다면-작년 말에 이미 정부 건물들 안의 서류와 정보들은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미국이 공격했을 때는 '건물 켜내기'만 공격했다는 거지요- 미국 정부와 사담후세인이 한 통속이 되어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민간인들을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이라크 국정 운영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담 후세인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당원들을 쫓아내고 보자'라는 식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미국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이라크가 미국 땅입니까? 명분 없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이라크의 모든 석유를 가져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라크 내정까지 간섭을 합니까? 미군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전이나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길 가다 앞 차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운전사를 총으로 쏘 죽이는 것이 미군의 할 일입니까? 이미지 개선을 한답시고 기자들을 잔뜩 몰고와서 약탈 당한 학교를 청소해 주는 척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왜 이라크인 스스로 이 나라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무화시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아름다운 나라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도덕을 저버린 지금 더 이상 미국에 걸 희망이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아랍사회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져갑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쌀람은 혼자 있고 싶다며 자기 차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알 하난 정리에 관한 보고 (6월 16일, 김하운)

## 다르 알 하난 Dar Al Hanan 정리

유은하씨와 현지 파트너 살람은 전쟁 직후에 다르 알 하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약 90여명의 장애아동들(몇몇의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요)이 생활하고 있는데, 유은하 팀원과 살람이 처음 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50여명의 워커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마당 등에 파리가 잔뜩 붙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유은하 팀원과 살람은 이 시설이 현지인들의 힘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곳에 머무르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은하 팀원이 사비로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서 매니저를 비롯한 워커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다르 알 하난도 체 체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부터는 샴푸와 비누를 일정하게 계속 공급하면서 두 달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씻기기 시작했고, 몇몇 의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의료차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유은하 팀원의 활동과는 별도로, 아랍 에미리트에서 지원한 시설 공사가 시작되어 각 방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마당을 새로 깔고, 세탁실을 개조하고, 아이들 침대를 전부 교체해 주는 등, 외부에 의한 만족할 만한 시설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군에 의해 정부기관들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고 있고, 따라서 이곳 워커들도 노동청에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은하 팀원과 살람이 다르 알 하난에서 일을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인 시설의 정상적 운영은 현재 그런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내부적인 문제

다르 알 하난의 내부적인 문제들은 유은하 팀원을 비롯한 이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 단체들의 지원활동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에도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는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첫째로 워커들의 태도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지만, 매니저를 비롯한 약사, 물리치료사 등 대부분의 워커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했고, 몇 번이나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치료와 대책을 요구해야만 겨우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였으니까요. 밥을 먹는 것부터 아이들은 서로서로를 도우며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샴푸와 비누가 공급된 후에도 목욕하는 과정의 상당부분을 상대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역할을 맡아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약품공급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워커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공된 비스킷과 샴푸, 약을 훔쳐가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팀과 같은 외부 봉사단체가 이들 시설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인사권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어떤 것을 뜯어고치고 우리 식의 새로운 방식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들고 운영해 온 시스템 자체에 개입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들이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틀 안에서 유은하씨와 살람



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려 쓰던 사무실에 일정하게 출근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 뿐이었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르 알 하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시스템에 관한 이러한 원칙들은, 최근 다르 알 하난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한 외부 단체들의 대대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확실히 유능한 팀원이 진행해왔던 봉사 활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외부적인 문제**

6월 초반에 미군에 의해 움직이는 이라크 노동청에서 다르 알 하난을 비롯한 이런 종류의 시설들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동교를 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을 중단시켰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NGO들의 활동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군요. 노동청에서는 이런 시설들에서 봉사하는 여러 NGO들을 조정할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군이 개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 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이라크 사회 재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르 알 하난의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과의 마찰 없이 이곳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노동청의 허가를 의미하는 그린카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미군의 통제 하에서, 또 어느 정도는 미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일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요청됩니다.

**4. 결론**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인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거지요.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동의한 어떤 정부나 기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다르 알 하난의 경우, 그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유능한 팀원과 살림이 만들어주었고, 실제로 현재 시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부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다르 알 하난을 비롯한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현지 활동 보고 (6월 18일)**

**청소 사업.**

일단 5개의 빈곤지역(알까마리아, 알슈와다, 알라하세, 알우바이디, 알마시텔 - 팀의 모든 지역 사업은 이 5개 빈곤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대충 앞으로 2-3일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이후에는 그 지역에 다시 청소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알까마리아 뿐만 아니라 알슈와다와 알우바이디(이 두 곳은 이전에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지 않은 지역)도 청소를 할 계획이다.

- 현재 쓰레기 청소 활동 : 알까마리아
- 쓰레기 집하장 만들기 : 5개 지역
- 이후 쓰레기 청소 활동 : 3개 지역

**아이들 사업.**

식량 지원은 지난 9일부터 아이들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갔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10일 단위로 5000불씩 7월말까지 5회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역시 5개 빈곤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일단 알마시텔 헬스센터 책임자인 아마르가 분유를 일괄 구입해서 5개 지역 헬스센터에 나누어주고, 각 헬스센터에서 각 지역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나누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곳 주민들은 전쟁 전부터 배급을 받기 위해서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 증명서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수와 나이가 적혀 있는데, 각 헬스센터에서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가정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이들 식량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 도서관과 놀이터 만들기 사업.**

아이들 도서관과 놀이터 만들어주고 학교 만드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처음 계획에 차질이 있다. 처음에는 동네에 들어가서 빈집 찾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서 일단 알마시텔 헬스센터에 하나 잘 만들기로 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크게 존중하고 따른 건데, 일단 빈곤지역 동네에서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만한 공간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집을 사거나 임대할 수는 없는 노릇. 각 지역에 있는 헬스센터가 그나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들쭉는 일단 이라크에서는 아이들 놀이나 공부와는 완전히 뒷전이라는 점이다. 사실 알마시텔에 하나 만드는 것도 그나마 이 지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열린 태도를 보여서 가능한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른들이 아이들 방학하면 대부분 일을 시키지 그런 공부방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단 알마시텔 헬스센터에 하나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이걸 다른 지역에서 보고 배워서 하나씩 늘려가자는 것. 기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 즐기고 생각 중이다. 생각보다 예산도 조금 들어갈 것 같음.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 계획도 세워져 있다. 조만간 초등학교 방학이라서 임시 학교 같은 걸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그리고, 이곳 초등학교가 21일 기말고사인데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는데, 5개 지역에 있는 15개 초등학교에 기말고사를 위한 종이를 공급하려면 7500불이 든다. 이걸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 평화연대 쪽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 식량(어른들), 청소 사업 등에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다.

뉴바그다드 지역 사업 말고 한 두 곳 더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판단할 예정인데, 하나는 살림의 누이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500명정도)에 학용품을 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해피 웨일리라는 아동극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팀 회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이다.



■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 (6월 20일)

#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

발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평화와 나눔을 연대)

수신 :

안녕하십니까?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은 전쟁만은 막아야겠다는 절실한 요구로 결성되었고, 이라크에 가서 반전 활동을 벌였으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아프게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실상을 보았으며, 전쟁은 실로 최악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지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터지더라도, 더욱 큰 관심과 그것을 막기 위한 간섭을 우리는 촉구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대의 아래 전쟁의 피해자인 이라크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나눔 연대'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구호 사업에 맞는 체제는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온 많은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고맙고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번 이라크 전쟁 이후 구호 사업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사례이자 경험 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전부터 이후까지 장기간 현지에 있었던 단체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단체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길 책임과 필요를 느낍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고 또 긴급하지만 미처 손을 뻗치지 못했는지 판단하고 반성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타국의 전쟁이나 난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비로소 시작된 단계에서, 이번 경험이 제대로 정리되어 이후의 평화 활동에 밑받침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막 싹 트는 국제적인 관심과 활동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직후, 게다가 타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와 인력이 가장 필요했는지 등등, 다음에 우리가 전쟁 이후 구호 활동이라는 비슷한 과제를 풀 어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자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우리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단계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선형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번 구호 활동 못잖게 의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구호 활동이나 평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각 단체마다 낼 수 있다면,

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받으시는 단체께서 정리 작업을 하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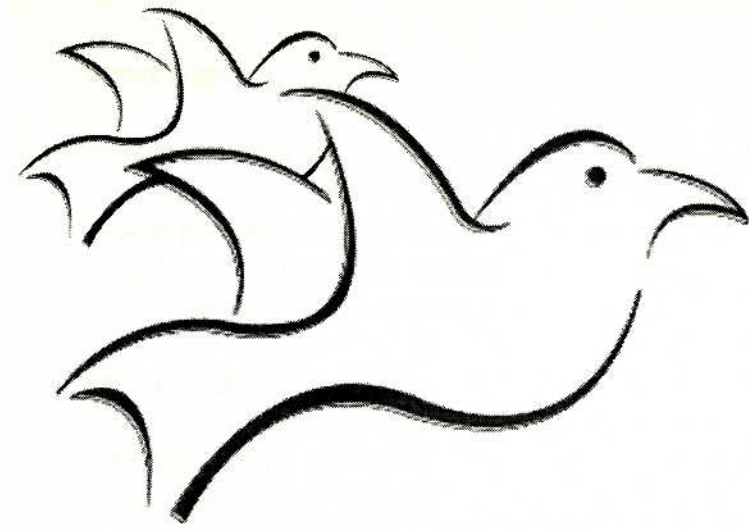
몇 가지 질문을 보냅니다. 부디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라크라는 어려운 땅에서 만났듯이 앞으로도 반전 평화 운동의 여러 영역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라크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살라.

1. 이라크 구호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 또는 계기는?
2. 어떤 방식으로 그런 구호 활동을 하리라고 계획했는지?
3. 실제로 이라크에 가서 계획대로 수행이 잘 됐는지?
4. 계획이 수정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5. 몇 명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지역 혹은 영역에서 일했는지?
  - 1) 몇 명 :
  - 2) 얼마의 기간동안 :
  - 3) 어떤 일을 :
  - 4) 어느 지역: (예컨대 '뉴바그다드' 혹은 '싸우라 시티' 등등)
    - 4-1 그 지역의 선정 이유는? 혹은 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 5)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활동의 영역은? (예컨대 병원, 사회시설 등)
      - 5-1 그 영역의 선정 이유는? 혹은 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 6) 외국 단체와 협력하였다면 어느 단체였는지.
      - 6-1 그 단체를 선정한 이유는?
6. 어떻게?
  - 1) 의약품 지원. 어느 분량
  - 2) 식량이나 생필품, 학용품 지원. 어느 분량
  - 3) 노력 봉사. 어느 시설에서 어떻게.
  - 4) 시설이나 단체에 귀속됨 없이 자유로이 활동. 어떤 식으로
7. 상대 협력자는 누구 혹은 단체였나?
  - 1) 의약품을 준 상대 의료시설은? 그 병원이나 의료 시설의 어떤 대표자가 인수를 받았나? 그 대표자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과 소개를 거쳤는지?
  - 2) 식량, 생필품, 학용품을 준 상대 주민들은? 그 주민들의 어떤 대표자가 인수를 받았나? 그 대표자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과 소개를 거쳤는지?
  - 3) 노력 봉사한 시설의 상대 협력자는 누구였나? 그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 4) 현지인 누구와 의사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받았나? 그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8. 어느 기간? 조사 기간과 활동 기간을 구분하여.
9.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10.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11. 앞으로 비슷한 일을 할 사람들을 위해 남길 조언은?
12. 구호 활동 이후의 소감이나 자체 평가는?
13. 기타. 이 설문지에 대해서나 반전 평화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 단체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으면 1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의 이라크 전쟁 이후 구호 사업'에 대한 백서가 완성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슈크란.



## 2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기록

지원연대 활동의 과정  
지원연대 회의의 과정과 결과  
후원금 및 성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성명서 및 자료들





## 2부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기록

### 지원연대 활동의 과정

### 지원연대 회의의 과정과 결과

### 후원금 및 성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이라크반전평화팀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

이라크 민중지원 성금 수입과 지출 내역

### 성명서 및 자료들

이라크 평화팀 등록에 필요한 사항

IFT 등록시 본부에서 발송하는 메일

출국 기자회견 지원연대 성명서 (2.7)

제 단체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지 성명 요청 공문 (2.11)

서명운동 - 부시와 블레어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12)

후원 요청 공문 (2.12)

지원연대 위상과 활동(보완) (2.21)

이라크반전평화팀 공식 입장 요청문 (2.23)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과 함께하는 지원을 위한 요청 (2.27)

조선일보 기사 정정보도 요청 공문 (3.4)

4당 공동성명서 (3.13)

노무현대통령의 부시 지지에 대한 항의 성명 (3.14)

서명운동 -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이유 (3.14)

무기한 1인 시위 선언문 (3.19)

이라크 침공 규탄 지원연대 성명서 (3.20)

마르니에 촛불시위 제안문 (3.27)

이라크 재입국 관련 요청사항 (3.31)

명동성당 천막농성 성명서 (4.8)

성명 - 반전평화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11)

한국군 파병에 관한 농성단 성명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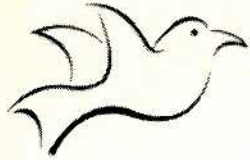
이라크 평화와 이라크 민중 지원을 위한 연대를 제안합니다 (5.6)

평화와 나눔의 마음으로 이라크 민중지원을 시작합니다 (5.28)

ID 카드

공식정리 공지문(8.1)





## 지원연대의 활동과정

### 1월 5일 일

-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현 전쟁없는 세상) 정기모임에서 한상진 이라크 현지 반전활동 및 인간방패 활동을 재안하였다.

### 1월 중순

- 이라크평화팀 참가 희망자를 정부 당국의 제재를 염려하여 비공개로 모집하였다. 당시 이라크평화팀 준비하는 사람은 손이덕수, 염창근, 이지숙, 조선주, 한상진 등이었다.

### 1월 23일 목

- 남효주, 이영화가 참가를 신청하였다.

### 1월 말 - 2월 초

- 이라크평화팀에 참가를 준비하던 염창근이 여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이라크평화팀의 지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염창근은 여권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라크평화팀 지원기구를 만드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 1월 말 1진이 출국하기로 하였으나, 준비 미흡으로 2월 초로 미루었다.
- 참가자에게 다음의 준비를 전달하였다. 여권, 이라크평화팀 등록(인터넷 등록), 요르단 비자, 학습(중동역사, 현재 중동상황, 이라크전쟁 관련 서적, 평화활동 관련 서적, 기본 아랍 회화, 구호 및 응급처치 기술 등), 소속단체 및 지인들에게 모금, 결의서, 사전 인터뷰 및 사진촬영 등
- 참고한 자료 및 서적 : 『세계사 5000년』, 『한겨레 21』, 촘스키와 하워드 진의 공저 『미국의 이라크 전쟁』, 페트라 캘리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촘스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불량국가』, 간디에 관한 책 등

### 2월 3일 월

- 부시 미대통령이 일명 '충격과 공포'라는 전쟁준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라크 현지에 있는 소위 '인간방패' 활동가들이 이라크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IPT 사무국에서도 이후 합류를 보류하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침을 전달하였다. 실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만 합류할 수 있었다.
- 1진 출국을 7일로 확정하였다. 참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16명이었다.
- 한국군 파병저지 운동과 이라크평화팀 지원 사업은 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국군 파병저지 운동은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를 통해 진행하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단을 결성해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모금활동, 여론확산활동, 의약품 지원 등이다.

### 2월 4일 화

- 한국이라크평화팀 참가자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이 시민의신문사에 모여 이후 활동에 관해 논의하였다. 다음날 지원단체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모임을 사회당 중앙당사에서 가지기로 하다.

참가자 : 남효주, 성혜란, 손성희, 염창근, 오김숙이, 이영화, 전승로, 조선주, 한상진, 허혜경(이상 이라크평화팀), 남기윤(이영화 남효주 가족), 박윤기(사회당), 소란(여성해방연대), 유지내(전학협), 원주(대학생신문사), 이종우(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권용운, 정용인(시민의신문사)

- 사진 : 시민의신문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라크평화팀 참가자와 지원단체 담당자들

### 2월 5일 수

- 지원 단체들이 사회당 중앙당사 강당에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약칭 IPT지원연대)' 결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라크평화팀의 공식 명칭을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Iraq Peace Team of Korea'로 결정하였다. 지원연대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에 염창근을 선임하였다.  
참가 : 대학생신문사(원주), 사회당(박윤기),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염창근), 여성해방연대(소란), 전학협(유지내), 환경연(손성희), 남기윤(개인), 남효주, 이영화, 한상진(이상 반전평화팀)
- 지원연대 사무실을 '비폭력평화연대'와 '함께가는 사람들'의 사무실인 '종로구 안국동 139 동신빌딩 401호'에 설치하였다. 대표전화는 02-720-4277, 대표 메일은 iraqpeace@ngotimes.net로 하였다.

### 2월 6일 목

- 1진 환송식 및 합숙을 오후 6시부터 손이덕수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환송 식사, 응급치료 교육(이지은,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현 한국건강연대)), 준비물 점검, 활동과 확인 사항에 논의하고 점검 등을 진행하였다. 시간 부족으로 계획했던 아랍회화 및 기타 학습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 준비물 : 개인 물품, 기초 의약품, 비상 식품, 건강 관리 식품, 깃발 등
- 후원 계좌를 개설하였다. 국민은행, 527801-01-069645, 염창근(IPT지원연대)

### 2월 7일 금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기자회견을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 30분에 진행하였다.
- 2진 참가자 모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였다. 여권, 등록, 비자발급, 재정, 결의서, 자기 소개서, 연락처 등을 확인하였다. 2진 팀장으로 은국을 선출하였다. 예정 출국일을 15일로 확정하였다. 합숙 일정 및 프로그램, 2진 출국 방법을 논의하였다.

### 2월 9일 일

- 1진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요청받았다. 한국음식, 개인 명함, 활동 물품 등

### 2월 10일 월

- 2진 참가자 2차 모임을 4시에 여성해방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 1진상황, 2진 활동목적 및 방향, 2진 준비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진 참가자로 박서연, 손성희, 오김숙이, 은국, 전승로, 최재훈, 허혜경, 강은지, 성혜란, 임종진으로 구성하였다.
  - 반전평화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음 모임 때 제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반전평화팀의 준비가 너무 부족해 최대한 보충하기로 하였다.
  - 1진과 통화할 때는 현지시간 오전9시경(한국시간 오후 4시경)에 하기로 하였다. 1진 연락처(제네바 호텔, 962-6-585-8100)를 공유하였다.



- IPT 등록 및 확인 메일에 완벽히 준비하기로 하였다.
- 항공편은 손성희(환경운동연합)가 알아보고 메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 2진 출국 예정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15일에 집회에 참석하고 출국하기로 하였다.
- 반전평화팀 단체웃은 여성해방연대에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 소속 단체 및 연대단체에 후원모금과 홍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동행취재를 하는 3명(강은지, 성혜란, 임종진)을 그냥 참가자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2월 15일 집회에 관해 유인물과 팻 제작을 지원연대 차원에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 이후 참가자 요건을 결정하였다. 가족의 동의, 사망을 포함한 유사시에 대한 각오, 개인 결의서 및 기록부 작성, 참가하는 날부터 일지 작성, 일정량의 재정 분담, 기본적 회화 가능 등.
- 지원연대 2차 회의를 6시에 여성해방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 참가 : 대학생신문사, 사회당, 여성해방연대, 전학협, 환경운동연합, 지원연대 사무국장
  - 지난 회의, 1진 상황, 지원연대 상황을 보고하고 각 단체 활동 및 계획을 공유하였다.
  - 2진 출국 준비에 관련해 논의하였다. 환송식, 재정, 물품, 의약품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원연대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보, 후원모금 조직화, 2월 15일 집회 참가 준비, 3진 준비 등과 관련해 논의하였다. 홍보는 환경원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1인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지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였다.
  - 의료 지원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보건의료단체연합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3진에는 의료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인간방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표현 자체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반전평화 실현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생명을 옹호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라크반전평화팀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 여성해방연대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제목의 2-3월 반전평화 투쟁을 제안하였고, 계획을 공유하였다.
  - 사회당 반전평화특별위원회에서 '우리도,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함께 한다'라는 '300단체 지지 지원 성명 받기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계획을 공유하였다.
  - 후원 요청 공문,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지성명 요청 공문 등을 처리하였다.
  - 2진 합숙 및 교육과 관련해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홈페이지 개통. <http://iraqpeace.ngotimes.net>

2월 11일 화

- '인간방패'라는 표현 자체를 제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기자들에게 촉구하였다. 지원연대 내부적으로 '인간방패'라는 표현을 모두 수정하였다.
-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인간방패 표현 자체, 1진 소식 정리, 2진 참가자, 지원연대 활동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 지지성명 요청 공문을 제 단체에 발송하였다.

2월 12일 수

- 2진 참가자 3차 모임을 오후 5시 여성해방연대에서 진행하였다.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명확히 IPT에 합류해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IPT의 원칙대로 이 전쟁의 증언자, 목격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현지에서 IPT의 한국팀으로 활동하는 것, 동시에 요르단에서 캠프를 차리고 이후 후속활동 및 지

- 원활동을 벌여내는 것, 또한 난민구조활동과 의료지원활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한국대사관(요르단)은 이라크 출입과 보호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대사관측에서 허용을 했다고 하였다. 현지인들이 대사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사관측에서 말을 해놓기로 하였다. 또한 전쟁시, 한국인에 한해서 한국 대사관 지하시설로 피신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준비물 및 합숙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기자회견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사진촬영 및 소견 발표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 후원요청 공문 제 단체에 발송하였다.

2월 13일 목

- 지원연대 3차 회의를 오후 2시 안국동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 참가 : 대학생신문사, 사회당, 여성해방연대, 전학협, 지원연대 사무국장
  - 지난 회의, 1진 상황, 2진 준비 상황, 지원연대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 각 단체 활동 및 계획에 관해 공유하였다.
  - 2진 출국 준비 관련, 2진 합숙 관련, 15일 집회 참가 관련, 2진 출국 환송식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 지원연대 이후 활동 계획(홍보팀, 후원모금 조직화, 3진 준비 등)에 관련해 논의하였다.

2월 14일 금

- 2진 출국 보도요청을 하였다.
- 2진 합숙을 사회당에서 제공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15동 95호에서 시작하였다.
  -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준비물을 점검하였다. 1진 요청 준비물(명함, 된장, 김치, 김, 쿠킹호일, 커피믹스, 말미약, 치마 등)
  - 아랍문화 교양(7년간 아랍권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아랍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라크 현지 상황 교양(이라크 취재를 하고 돌아온 VJ 김영미)을 진행하였다.

2월 15일 토

- 국제공동반전집회 참가하였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진 참가자(성혜란, 오금숙이, 은국, 전승로, 허혜경)들이 단상에 올라 발언하였다. 모금운동을 진행하였다.
- 2진 환송식 및 합숙 프로그램 진행
  - 민중의술 및 자기 건강 관리법 교양(이지은,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
  - 응급처치 요법(서울대 의대 인턴)
  - 환송식
  - 현지 상황을 공유, 2진 준비 점검
  - 함께하기로 한 합숙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 준비물 점검
  - 재정 1075만원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지원한 기초의약품
  - 개인 여행준비 : 여권, 비자, 비행기표, 옷, 비상식품, 필기도구, 개인필수물품, 세면도구 등
  - 카메라, 캠코드, 노트북
  - 공동물품 : 단체티, 깃발, 약품, 건강물품, 식품(김치, 김, 캔 등) 등
  - 책 : 간디 자서전, 마틴 루터 킹 자서전,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